

2013년
제1회 진로교육포럼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일시_ 2013. 3. 27(수) 14:30~17:00

장소_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인 사 말

진로탐색 활성화 등 학교교육의 새로운 계기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바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으로 관련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자유학기제 시행에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시행은 진로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큰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교육 주체들의 비상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진로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로교육포럼을 마련하고, 그 첫 번째 자리로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귀한 의견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박 영 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제1회 진로교육 포럼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 개 요 >

- ◇ 일 시: 2013. 3. 27 (수) 14:30 ~17:00
-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 주 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

< 프로그램 >

좌 장: 김 승 보 센터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14:00~14:30 (30분)		사전등록
14:30~14:35 (5분)	개회사	박 영 범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35~15:45 (70분)	기조발표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곽 병 선 박사 (前 한국교육학회장)
	주제발표1	성공적인 자유학기 운영 방안: 진로탐색 中心 접근 이 지 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제발표2	자유학기제: 주요쟁점과 이슈 진 미 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례발표	집중이수제를 활용한 진로활동 프로그램 운영사례 이 선 희 교사 (경기 부인중학교)
15:45~16:30 (45분)	지정토론	김 진 속 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민 회 정 학부모 (경기 연성중학교)
		윤 여 복 장학관 (서울시교육청)
		김 중 우 교사 (서울 성수고,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장)
16:30~17:00 (30분)		종합토론



차 례

제1회 진로교육 포럼

■ 기조발표

-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1
곽 병 선 박사 (前 한국교육학회장)

■ 주제발표 1

- 성공적인 자유학기 운영 방안: 진로탐색 中心 접근 17
이 지 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제발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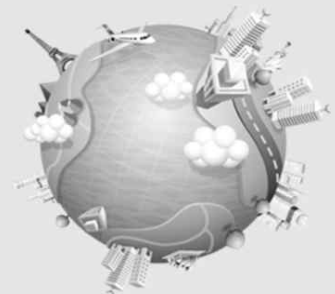
- 자유학기제: 주요쟁점과 이슈 53
진 미 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례발표

- 집중이수제를 활용한 진로활동 프로그램 운영사례 85
이 선 희 교사 (경기 부인중학교)

■ 지정토론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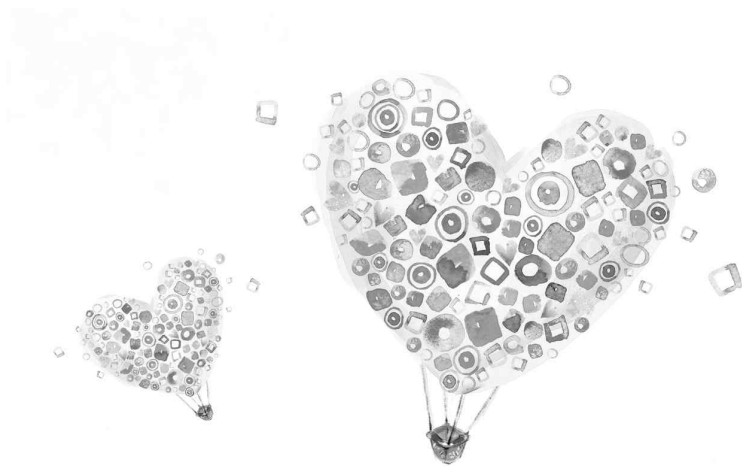
- 김 진 숙 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 민 희 정 학부모 (경기 연성중학교)
- 윤 여 복 장학관 (서울시교육청)
- 김 종 우 교사 (서울 성수고,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장)



기 조 발 표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곽 병 선 박사 (前 한국교육학회장)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곽 병 선 박사

前 한국교육학회장

I

자유학기제 구상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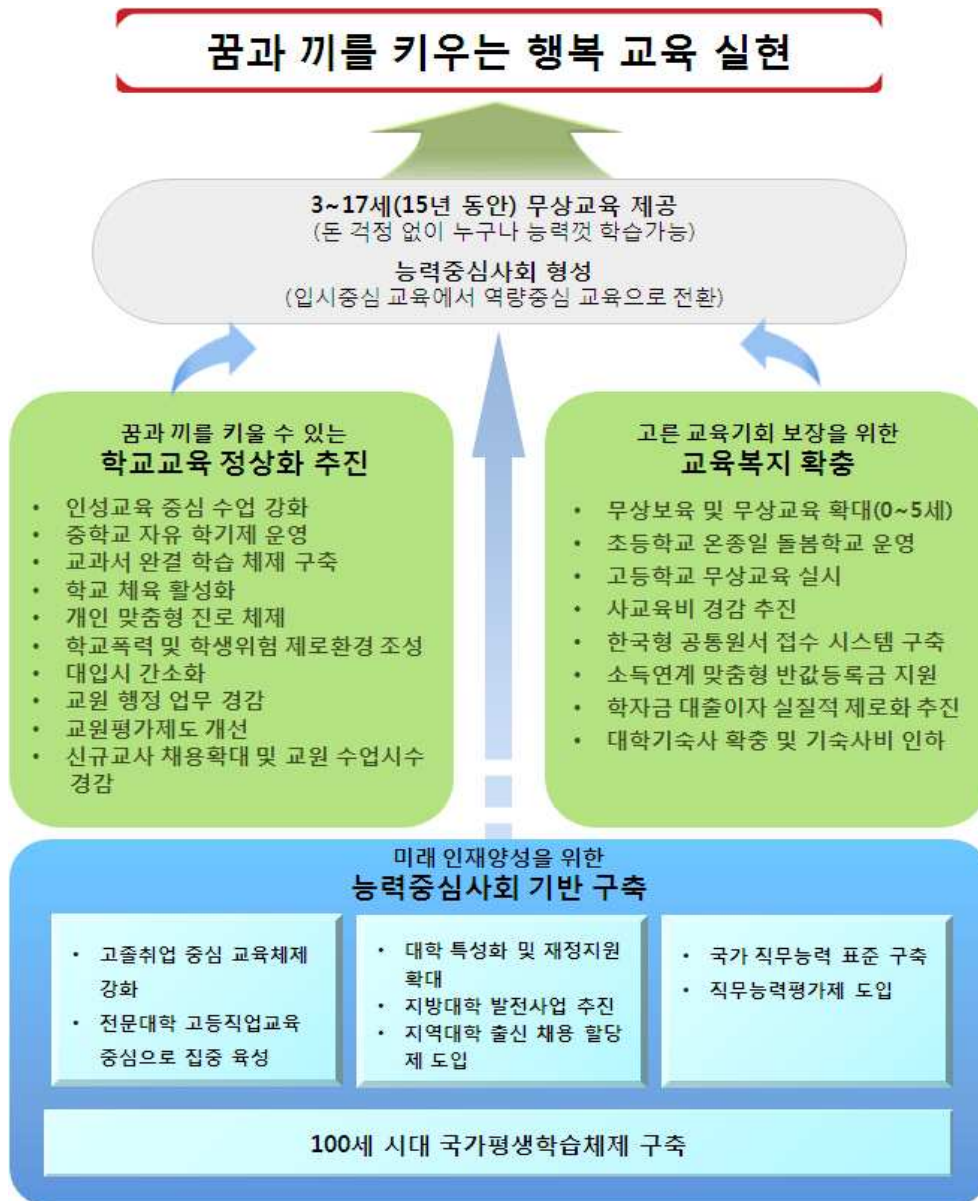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교육정책으로 등단시킨 팀은 제18대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교육공약 개발을 담당했던 일군의 학자그룹이었다. 이들은 한국 교육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시/종합적인 문제의식과 그 해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은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당시 박 후보의 교육비전이 중요하게 투영되어 있었다.

이 팀이 작업초기부터 일관되게 설정했던 하나의 기조는 ‘입시에 예측된 초중등교육을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기조의 연장선에서, 개별학교의 자율성 대폭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강화, 체험배려중심 교육강화, 개인맞춤형 진로설계지원, 사교육경감 정책 등을 설계했다. 이 작업은 대선 공식조직인 국민행복교육추진단에서 폭넓은 인사들로부터의 자문과 숙의를 거치면서, 정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 학자그룹이 구상했던 아이디어들은 더욱 강화되고 구체성을 띠는 쪽으로 조율되었다. 그것은 그만큼 초기 작업팀이 가졌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깊은 공감이었었고, 이를 선거공약으로 정책화함에 있어 교육현실에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력이 부각되도록 하는데 대한 주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행복교육추진단을 통해서 꿈과 끼를 기르는 초중등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듬어진 대선 공약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는 정책과제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 인성교육 강화, 학교체육교육 강화 등과 함께 새로이 보완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정책을 박 후보가 교육공약으로 발표함으로써 일단락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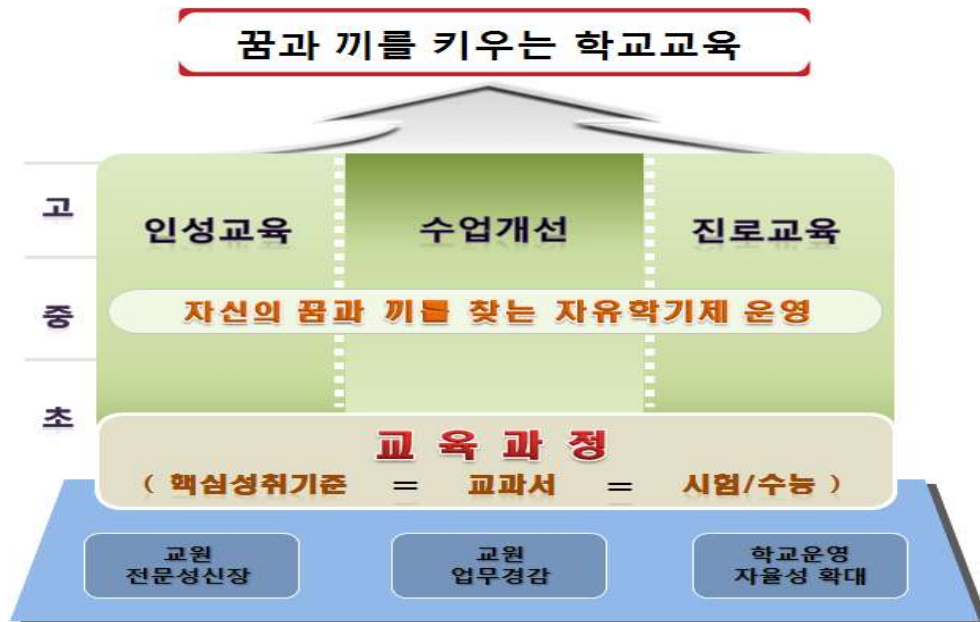
대선 후 꾸려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선과정에서 기 발표된 교육공약을 38개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였다. 인수위 국정과제로 표명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축은 공교육정상화 추진, 둘째는 교육복지 확충(고른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교육비부담 경감), 셋째는 능력중심 사회 기반형성이다. 다음 [그림 1]은 이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림 1]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3대축

출처: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2013.2.3), *교육과학분과국정과제 토론회* 쪽 7, (원자료에서 필자 임의로 교육비 부담 경감을 교육복지 확충으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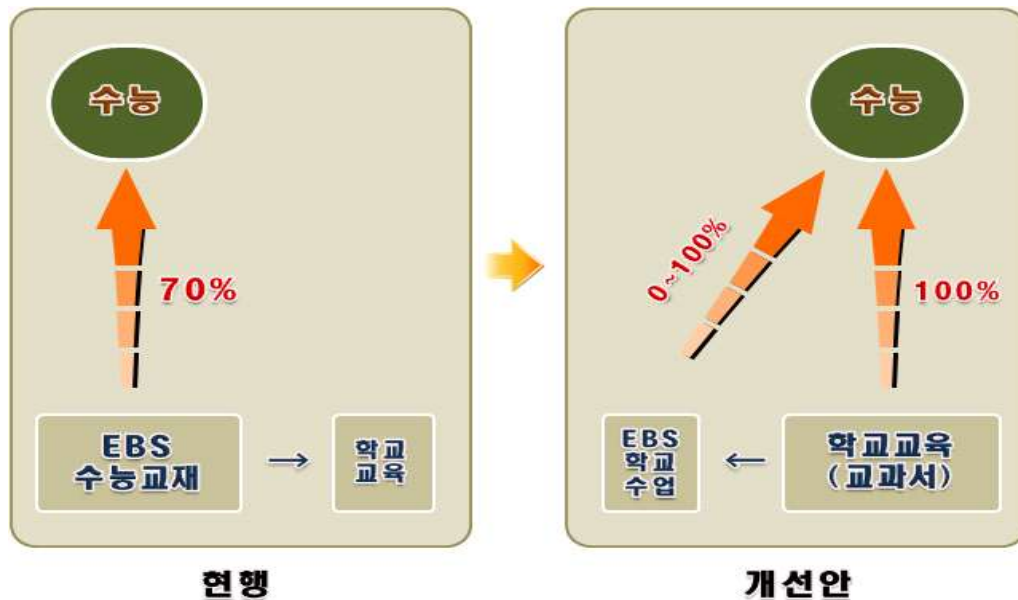
필자가 보기에,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1980년대 이후 교육개혁 이름으로 역대 정부들이 시도해 왔던 이러저러한 교육정책들의 종합적 결정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은 우리의 고질적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돌파력이 있는 정책들을 핵심을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돌파력 있는 정책들이란 과거에도 시도가 있었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만 입시위주 교육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말한다. 학생 저마다 자신의 잠재력을 찾고,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도록 도우려면, 학생들이 시험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개성신장, 창의성 교육은 과거에도 강조해온 교육의 과제였지만, 정작 이를 촉진할 학력평가 관행을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체질은 현상유지에 머물렀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은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다. 다음 [그림 2]는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박근혜정부의 학교교육정상화 정책의 기본구상

출처: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2013.2.3), *교육과학분과국정과제 토론회*, 쪽 8

이러한 정책 구상의 구체적인 적용 예로, 입시준비 교육으로 왜곡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EBS 수능방송 예측 고교교육을 아래 그림과 같이 바로잡겠다는 대안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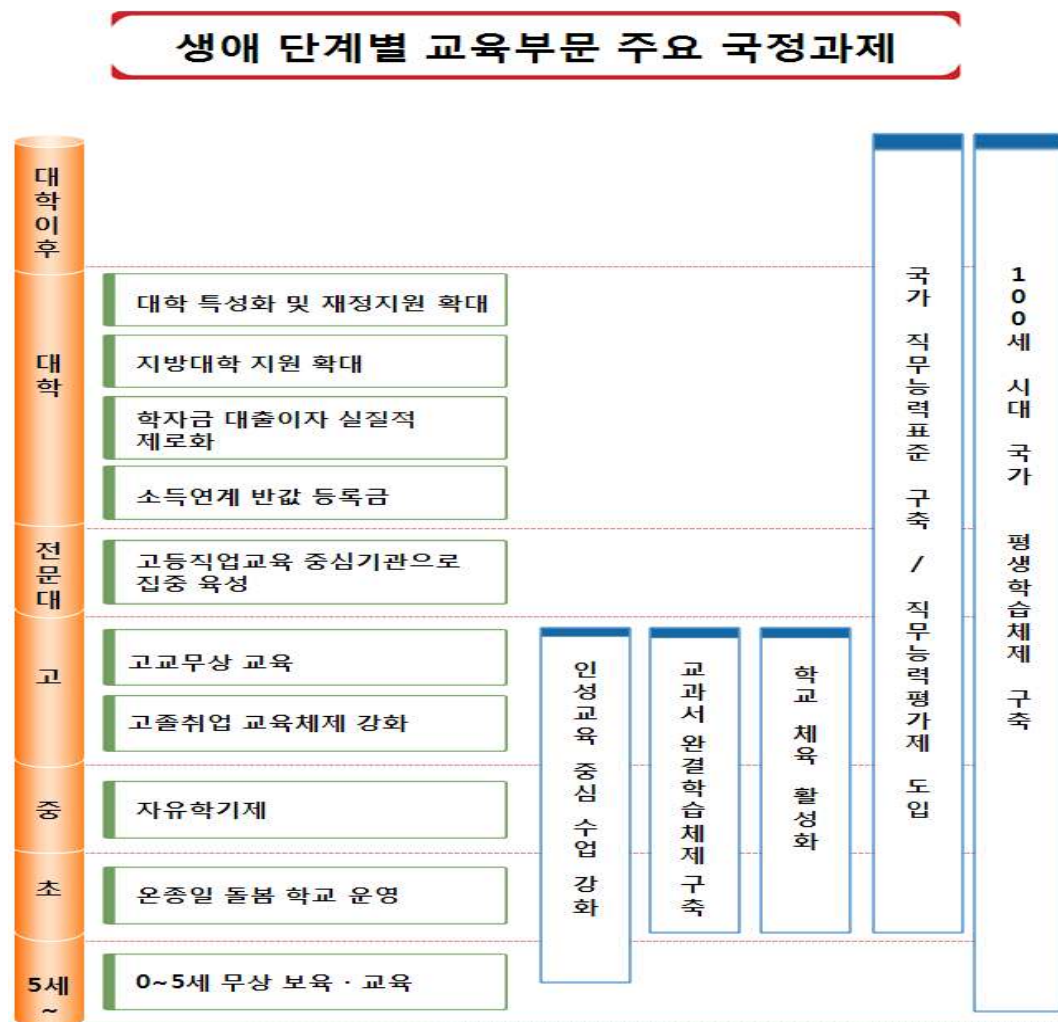
[그림 3] 수능방송 예측교육 극복 대안

출처: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2013.2.3), *교육과학분과국정과제 토론회*, 쪽 9.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은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를 가지고는 꿈과 끼를 기르는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행 교육체질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이 고질적 한국교육문제 해결에 돌파력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이다.

둘째, 우리 교육의 당면 현안을 전면적,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그림 1]이 시사하는 것처럼, 박근혜정부의 공(학교)교육정상화, 교육복지 확충,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의 세 축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제반 정책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것은 공교육정상화 정책을 포함해서, 출생에서부터

100세 까지의 전생애에 걸쳐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능력껏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국가직무능력 표준체제 구축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능력중심 사회 기반을 형성 정책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아래 [그림 4]를 통해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림 4] 생애단계별 교육부문 주요 국정과제

출처: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2013.2.3), *교육과학분과국정과제 토론회*, 쪽 53

셋째, 정책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소요재정을 공약이행 약속 대상으로 천명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이 정책안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복지 확충에 해당하는 교육비 부담경감 정책들은 모두 정부의 재원 확보 여부에 그 성패가 좌우된다. 박근혜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대통령 약속으로 보장하고 있다.

넷째, 이상에서 언급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들은 야당의 대선후보들이 내세웠던 교육정책들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에서 제안해 온 여러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유아교육지원, 고교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정책 등 교육복지 부문과 선행교육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교육금지 정책에 있어선 대동소이 했다. 이것은 정당을 비롯한 사회 각계 저변에,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기본적 해법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은 역대 정부들이 추구해 왔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교육 여론 주도세력들의 여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것은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어인 꿈, 끼, 행복교육의 의미를 살리는 여러 공약 가운데, 획일적 학습체질을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 파괴력을 지닌 정책으로 의도하고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중하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정책과제이다.

II

왜 자유학기제인가?

자유학기제란 외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교육현실에서 배태된 특단의 정책 대안이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연상하기도 하지만, 그 출발 취지가 크게 다르고, 앞으로 전개될 구체적 적용방안 역시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학기제는 시험에 예측된 우리의 답습형 교육체질을 창조형 체질로 전환하려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대목은 자유라는 용어이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진화해온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70여년의 역사 전개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서구사회 시민 못지않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자유사회의 가치를 체화할 수준으로 민주화를 성숙시켰다. 한 나라와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느냐는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이지만, 다소 총체적인 입장에서 인간 삶의 조건을 통찰한다면, 행복의 중요한 지수는 국민이 얼마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한 국가나, 국민이 얼마나 원하는 대안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의 정도에 좌우되는 것이고, 그 선택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삶의 조건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행복의 조건에 핵심적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원하는 삶을 가질 수 없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자유국가를 지향하여야 하고, 자유인 양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육받은 사람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Hook, 1967, 44). 그러나 자유인으로 길러져야 한다. 교육의 이름으로 길러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그 어디에 예측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 인간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그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의 독립성을 위해하려는 내외의 도전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과제이기도 하다(Ayers, 2004, 41). 한 나라나, 개인이 자유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무거운 주제이다.

교육이라는 현실 지향적 입장에서 자유인 교육을 접근한다면, 그것은 상황 주도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곽병선, 1998). 상황주도력이란 어떠한 미래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리키는 말이다.

왜 굳이 자유라는 말을 썼는가? 자유인을 기르는 교육으로 나가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자유라는 말은 예측, 의존, 해방, 자주, 주체, 독립 등을 연상시킨다. 그러면 우리교육은 자유인을 기르지 못하고 있나? 은유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은 크게는 대입시험, 작게는 크고 작은 시험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기 주도력을 제대로 키우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맹목적으로 고득점 기계로 훈련을 받고 자랄 뿐, 공부에 즐거움과 흥미를 키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험실습이 실종된 과학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옆에 일본을 보자.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두 자리 수(16명)를 넘었고, 근래에는 2~3년 주기로 배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탄 다나카 고이치는 43세의 무명의 연구원이었다. 그는 그가 27세에 있었던 실험에서 실수로 우연히 발견한 현상을 보고한 논문으로 받게 되었다. 우리 교육은 이와 같이 그 대상이 무엇이던 하는 일 자체에 몰입하는 근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과제에 관한한 답습형 교육체질의 현상유지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최근 한일관계는 우리의 뼈아픈 최근세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있지만, 극일은 감정만으로 안 된다. 과학, 기술, 문화, 등 어떠한 분야이건 미래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왕도이다.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교과교육에 해당된다.

상황주도역량을 가진 자유인을 기르기 위해선, 학교 과정이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것은 학생 각자가 자기 주도력을 행사하는 학습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답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학생 각자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리고 수정하는 일을 부단히 계속하는 작업과 같은 것이다. 삶은 주어진 것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선택의 몫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자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인 되기 과정의 연장선에서, 학생 저마다 성장 후 살아가야 할 일의 일의 세계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둔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학습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와 경로를 알도록 돕는 것 필요하다.

자유에 방점을 둔 자유학기제의 핵심적 취지는 현행과 같은 지필시험 준비에 학생들이 빠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것에 매몰되어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시험의 덫에 빠지게 하면 시험 준비에 함몰되어, 자신이 공부의 주인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공부는 열심히 하되, 그 공부하는 교과와 학생 사이에 소외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국제학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는 보이되 그 교과에 대한 호감도는 최하위에 머무르는 이유다. 학생 내면에서 스스로 발동하는 필요와 동기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한다는 압력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학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해 보아야, 그 공부하는 분야를 좋아해서 그 공부의 세계에 투신하는 근성을 기르는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래 그 분야에서 투신할 사람은 그 분야의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좋아서 장차 그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다. 우리가 진정 길러야 할 학생들은 시험 고득점 요령에 밝은 학생들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장차 자신이 투신할만한 일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찾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의지와 꿈을 갖는 학생들이다.

지필 검사로 자극할 수 있는 인간 역량개발은 지식정보암기정도의 저급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은 컴퓨터가 얼마든지 대신해 줄 수 있다. 오히려, 학교 학습은 토론, 관찰, 실험, 실기 연습, 체육, 봉사 등, 본인의 체험이 아니면 그 어떤 수단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인성발달, 사고력 개발, 자기 삶에 대한 목적의식 등을 바로 세우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학생들이 학습의 주역으로 역할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각자가 공부할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계획을 스스로 충실히 실천하게 하는 습관과 꾸준한 자기 개발의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는 것이다. 미래에 자기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자기 개발을 진행하도록 자극하고 돕는 것이다. 학생 각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Ⅲ

왜 중학교 자유학기제인가?

새로운 시도를 적용함에 있어, 중학교 단계가 학생의 자기 관리 능력 개발을 자극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고, 입시 준비에 예민한 고교 단계에 비추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 실행방안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착안 사항들은 무엇인가?

순서 없이 몇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자유학기제에 대한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의미를 어느 하나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그만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과 언론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의미 부여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다. 교육은 의지 실현의 과정이다. 우리 학생들의 장래 삶에 대한 기대, 점점 좁아지는 21세기 글로벌 환경에서 이 나라가 역할하고자 하는 꿈이 반영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란 말은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의도적으로 선택된 말이다. 그것은 21세기 미래에 가장 자유할 수 있는 나라, 개인을 만들자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 학습의 패러다임을 학생주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학기라고 전제하고 출발해야 한다. “이번 학기는 전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학기다! 네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는 학기다. 무엇을 얼마나 공부할지는 네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네가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는 네가 세운 목표에 비추어 네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 것이 바로 너의 성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사육을 방목으로 바꾸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 학생들이 시험 성적에 연연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어울리는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예컨대 과학시간은 실험시간과 동일시 할 수 있을 만큼, 교과 수업은 토론, 실험, 현장견학, 봉사활동 등 체험위주로 하도록 하여, 교과나 특별활동의 본질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학생 각자에게 “내가 잘하는(좋아하는, 원하는) 과목(특기)은 무엇일까?” 대해서 생각하고 부모, 교사, 친구들과 상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되게 한다.

-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 내에서 각자의 학습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수업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2. 연동해서 움직여야 할 정책 대안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체질이 온존하는 여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다. 바위가 깨지게 하는 정책대안들이 연동되어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답습형 교육체질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당연히 연동되어 마련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 교과별 성취기준이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정비 되어야 한다. 잡다한 기준은 과감히 털어버리고(현재 교과별 내용에 반 이상), 최소 필수 기준만 살리는 작업이 함께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21세기 미래 세계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길러야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그러한 포부에 적합한 미래역량을 의식하도록 돕는 기준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핵심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다.
- 자유학기제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이 그들의 장래 진로 개척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 상급학교 진학정책, 취업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적용을 받기 시작한 학생들이 고교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할 땐, 이들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는 입시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지필시험 예측을 불러오는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상응하는 학력평가 관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필 시험 성적 지상주의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과감히 버려도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도록 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기본 방향은 학생 평가는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으며, 교사의 학생 평가기록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교과 학습에서나 특기 적성 활동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암기 능력이 아니라, 해당 교과의 실험, 토론에 진지하게 참여하며,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즉 학생의 근성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험을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평가를 없앴다고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습을 개선시키는 평가는 장려되어야 한다. 지양해야 할 평가는 종전의 지필중심 암기력 평가이다.
- 도움이 필요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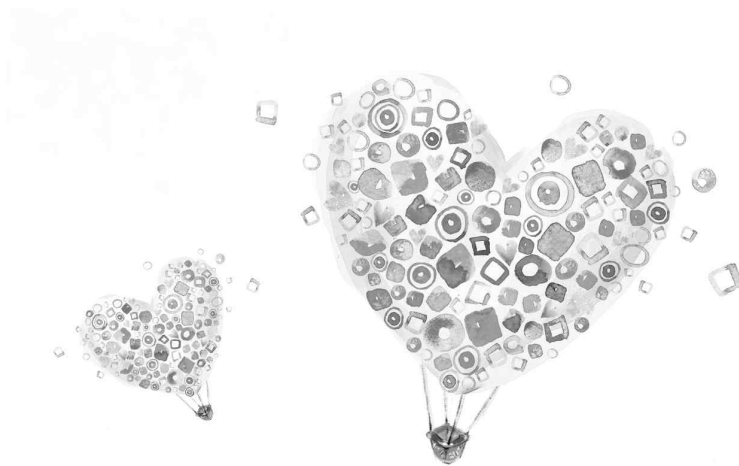
참고문헌

- 곽병선 (1998) *상황 주도력의 개발: 교육문제 해부와 국가 교육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노트 RN 98-1.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2013),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비발행 자료).
- Ayers, W(2004). *Teaching Toward Freedom: moral commitment and ethical action in the classroom*. Bacon Press, Boston.
- Hook, S(1967). *The Paradoxes of Freedom*. UCLA Press.

주 제 발 표

성공적인 자유학기 운영 방안: 진로탐색 中心 접근

이 지 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진로탐색 中心 접근

이 지 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I. 배경	20
II. 진로교육 관점의 필요성	24
III. 자유학기제 운영 목적 및 기본방향	29
IV.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및 추진체계	33
V. 기대효과	45
참고문헌	47
[부록]	49

요약

이 글은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인성·창의적 교수·학습·진로탐색의 3영역 가운데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 방안**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음. 인성이 모든 학교급과 교과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된 요소라면 진로탐색은 체험이라는 교수·학습방법의 특수성으로 기존 교과수업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창의적 교수·학습방법은 진로탐색 활동(①진로동아리, ②진로지역자원봉사, ③일체험)과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통하여 구현 가능하며 나아가 인성 함양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진로탐색 영역에 초점을 두었음. 이를 위하여 진로교육 관점의 필요성, 자유학기제 운영목적 및 기본방향, 그리고 교육과정 및 추진체계를 제안하였음.

I. 배경

○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에 대한 한국교육의 자기반성 (성찰)

- 새 정부는 그간 한국교육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적극 대응하며 21세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의 새로운 교육제도를 제시

※ 자유학기제는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21일 대선공약으로 처음 제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에는 학생들의 활동 내용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진로상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 기자회견문(2012.11.21) 중 세 번째 항목 -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의 기본 방향 강조

- 공약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교육 목표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2)을 강조
-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은 현재의 학교교육이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문제점 강조
- 따라서 학생의 “꿈과 끼를 끌어내어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 가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임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을 위한 정책으로 “중학교에서 1개 학기 동안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제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이 토론·실습·체험 등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단위 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새누리 정책공약, 2012)

○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 과정

<표 1>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 과정

정책추진과정	추진 특징	주요 내용			
대선 공약으로서 '자유학기제' (2012.11.21)	• 대선공약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21일 대선공약으로 처음 제시¹⁾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 캠프(후보 시절)의 행복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금지, 교과서 학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대학 입시 간소화 등을 골자로 제안한 교육 분야의 정책²⁾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³⁾ (2013.02.06)	• 실제성을 가진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제안	'13년 도입기 *정책연구 시행 연구학교 운영(11교) *진로직업체험센터 확대(11개)	'14년 확산기 *정책연구 결과 반영 → *운영학교 확대(50~100교) *진로직업체험센터 확대(25개)	'15년 발전기 *중학교 전면 시행 권장 → *진로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장	'16년 정착기 *중학교 전면 시행 → *진로 중심 교육과정 확대·운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국정목표 발표 ⁴⁾ (2013.02.21)	• 중학교 대상, 단계적 확대 • 시도 자율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학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도별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구체적인 내용을 국정과제 자료집에 명시하지 않음)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⁵⁾ (2013.02.26)	•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비한 기존 진로교육인프라 보완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부터 모든 중·고교생은 매 학기마다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받아야 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때 각각 한번 이상 직업체험에 참여해야 함. 자유학기제가 진로교육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형성 			

주 : 1)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 기자회견문(2012.11.21)

2) 경남도민일보(2013.01.09)

3) 서울시교육청(2013). 2013 주요업무계획

4) 연합뉴스(2013.0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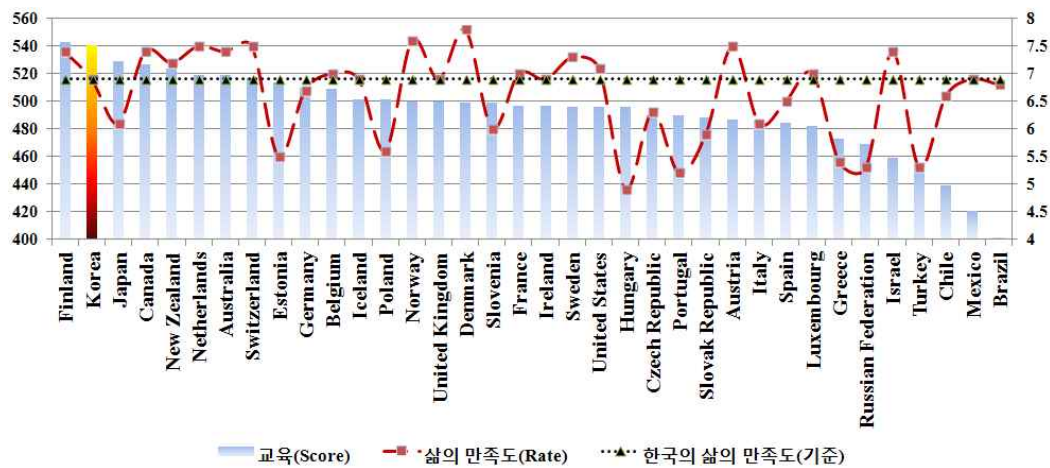
5) 매일경제, 조선일보(2013.02.26.)

○ 자유학기제의 필요 이유 :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행복하지 않은 학교생활

- 한국의 PISA(학업성취도) 점수는 평균 541점으로 OECD회원국 중 2순위
- 삶의 만족도는 교육성과와 달리 6.9점으로(10점 만점) 16순위
- 한국보다 학업성취도는 낮으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는 14개 국가

-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교육의 문제점 방증¹⁾
- 우리나라 교육 현안에서 나타나는 대학입학 중심 교육과정 편성, 학업성취도 위주의 획일적·경쟁적 학교 분위기 등은 학업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 왕따 정신병과 자살 등 학생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
- 미래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창의인재 양성의 큰 걸림돌

[그림 1] OECD 회원국들의 PISA¹⁾ 점수(학업성취도)와 삶의 만족도²⁾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2012)

- 주: 1) PISA는 1997년에 OECD에 의해 시작된 국제 연구로서 문장이해력, 수학, 과학 평가를 통해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을 3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측정되는 지표로 개별 주체들이 인식하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냄. 평가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측정됨.

○ 어떻게 청소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진로비전 수립의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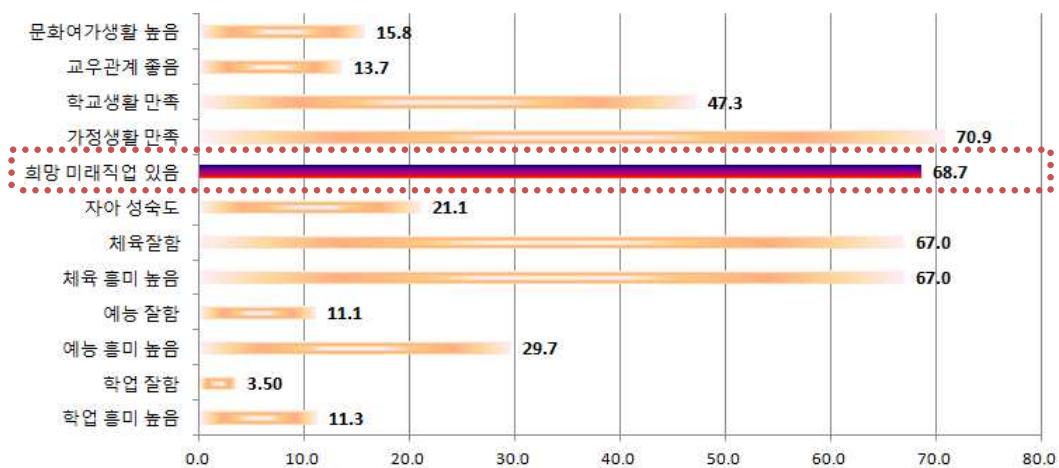
- 행복한 청소년이 보이는 특징은 1순위 “가정생활만족”에 이어 2순위가 “미래 직업 있음”
- 이는 학교 졸업 이후,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진로비전을 수립할 때, 공부하는 이유와 동기를 회복할 수 있어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재미가 있음을 의미

- 1)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은 핀란드와 함께 가장 우수한 수준을 보이나 학생들의 학업흥미도, 자기 주도학습 능력, 투자시간 대비 효율성 등은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상·하위 집단 간, 큰 학업 편차를 보임(OECD, 2012년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 PISA).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삶의 만족이 낮은 한국의 교육 현실과 행복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미래 진로 비전 수립은 새로운 진로탐색 中心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을 지향하는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을 지지

[그림 2] 전체 청소년과 행복한 청소년 간 요인 비교

(단위, %)



자료: KRIVET Issue Brief(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02.28

○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자유는? 6개 요인의 학습환경으로 부터 자유 필요

- ✓ 학업 스트레스 : 학력 중심 대학 진학, 선행학습, 사교육 등의 영향
- ✓ 학습공급자(교사) 중심 교수-학습방법 : 강의중심 일방형 수업진행의 부작용
- ✓ 주요 교과목 중심 교육내용 : 꿈(진로비전)과 끼(소질·적성·잠재력)연계의 불가능
- ✓ 교과서와 교실 중심 교육환경 : 「학습-진로-일」 연계와 탐색 기회 차단
- ✓ 시험 중심 평가 : 성적순에 의한 줄 세우기와 결과 중심 평가의 폐단
- ✓ 교사 중심 인력 : 학교 밖의 학습자원 지원 인력 활용의 미비

II. 진로교육 관점의 필요성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진로교육 관점의 타당성

■ 지향하는 철학 및 기본방향성의 일치

자유학기제 : 학생의 꿈(진로비전)과 끼(소질·적성·잠재력) 키워주는 행복교육

진로교육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여 진로비전을 설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원

■ 지향하는 교수-학습방법의 일치

자유학기제 :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이 **토론·실습 체험 등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진로교육 : 삶의 맥락 안에서 학습자(학생)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자기주도성과 적극적 학습 참여 촉진 교수-학습방법 강조

■ 지향하는 기대효과의 일치

자유학기제 : 미래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인성과 창의적 인재 양성

진로교육 : 인성과 창의성이 포함되는 진로개발역량 함양

○ 진로교육(career education)²⁾ 개인·교육·국가적 측면의 중요성

- 개인적 측면 : 적성과 능력을 포함한 자아 특성 및 개성의 발견과 개발

- 교육적 측면 : 삶 전체 맥락에서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 지원³⁾

※ 진로교육은 일반교육의 기능과 상호 대치되는 차별된 교육이 아니며 교육이 수행하는 **본질적인 기능인 동시에 평생학습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진로개발역량을 지원**하는 역할 강조

- 국가적 측면 :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고용·복지·교육 정책의 주요 가교 역할⁴⁾
건전한 직업관 및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의 성장

2)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이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계발시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활동

3)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교육과학기술부, 2012)에 자세한 내용이 포함

4) OECD (2004), CEDEFOP (2004)

※ 진로교육이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의 접근 기회와 정보가 봉쇄된 청소년에게 교육·훈련으로의 진입과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제고시킴으로 이들의 사회적 평등 및 통합을 개선시키는 국가 공공정책의 원활유적 역할을 담당하는 관점

○ 진로교육 철학 및 기본개념과의 동질성 : 개인의 책무성과 행복한 삶의 질 지원

- 진로교육은 개인이 삶에 필요한 생애역할·평생학습·일·여가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학습경험의 총체를 지원함으로 개인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며 행복한 삶의 질을 지향
- 궁극적으로 진로교육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향
- 따라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인 자유학기제 목표와 일치

- 꿈이란 ? : 희망,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진로비전
- 끼란 ? : 개인의 소질, 적성, 재능, 잠재가능성

○ 교육내용(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과 유사성

- ✓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 긍정적 자아개념, 대인관계·의사소통역량 개발
- ✓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 건강한 직업의식 함양
- ✓ 진로탐색 : 교육기회·직업 탐색
- ✓ 진로디자인과 준비 :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능력개발, 진로계획과 준비

<표 2>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내용		학교급 별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대영역	중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I.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1.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진로개발역량의 기초가 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의 기초 능력을 기른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역량 을 발전시킨다.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을 발전시키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 시키는 노력을 한다.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을 발전시키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 시키는 노력을 한다.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개발				

내용		학교급 별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대영역	중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II.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1. 일과 직업의 이해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최선 을 다하는 생활태도 와 건강한 직업의식 을 형성한다.	직업세계의 다양함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하고 건 강한 직업의식 을 발 견시킨다.	일과 직업세계의 변 화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 강한 직업의식과 태 도를 갖춘다.	일과 직업세계의 변 화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 강한 직업의식과 태 도를 갖춘다.
	2. 건강한 직업 의식 형성				
III. 진로탐색	1. 교육기회의 탐색	자신의 진로와 관계 있는 교육기회 탐색 을 통하여 학습의 의 미를 파악하고, 다양 한 방법으로 관심 직 업을 탐색하는 능력 을 기른다.	중학교 이후의 자신 의 진로를 위하여 교 육기회나 직업정보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역량을 기른다.	희망직업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 탐색과 아울러 고등교육 기 회 탐색 능력을 배양 한다.	희망직업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 탐색과 아울러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 탐색 능력을 배양한다.
	2. 직업정보의 탐색				
IV. 진로 디자인과 준비	1. 진로의사결정 능력 개발	향후 창의적이고 체 계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계 획수립과 의사결정을 연습한다.	자신의 진로·직업 및 교육 세계에 대한 탐 색을 바탕으로 중학 교 졸업 이후의 진로 를 창의적으로 설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기른다.	고등학교 이후 진로 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 립하고 준비한다.	고등학교 이후 진로 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 립하고 준비한다.
	2. 진로계획과 준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 진로교육이 강조하는 교수-학습방법⁵⁾과의 동질성

- 진로교육방법론은 단일교과에 비하여 실제적이며 역동적
- 일반교과목이 지식전달과 이해 중심의 방식이라면, 진로교육방법론은 보다 **실제적
이고 체험 중심적이며 자기 주도적 측면이 강한 내용을 다루므로, 삶의 맥락 안에서
일과 진로의 실천·체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형태의 전달방식을 채택**
-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통합 진로교육, 창체활동(진로활동)으로
운영되는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진로교육

- 진로교육은 그간의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상대적인 중요성이 결여
- 심리검사를 통한 소위 ‘test & tell’ 중심의 학교 진로지도는 자기이해와 단순한

5) 교과과정에서 진로교육요소(career component of the curriculum)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학습하고, 개인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경험의 구성(Calfrey et al., 1982)임. 개인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자질이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일과 진로에 관하여 인식·탐색·준비·실천 및 관리 등을 자기 주도적 함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교육방법론은 이를 학교장면에서 전달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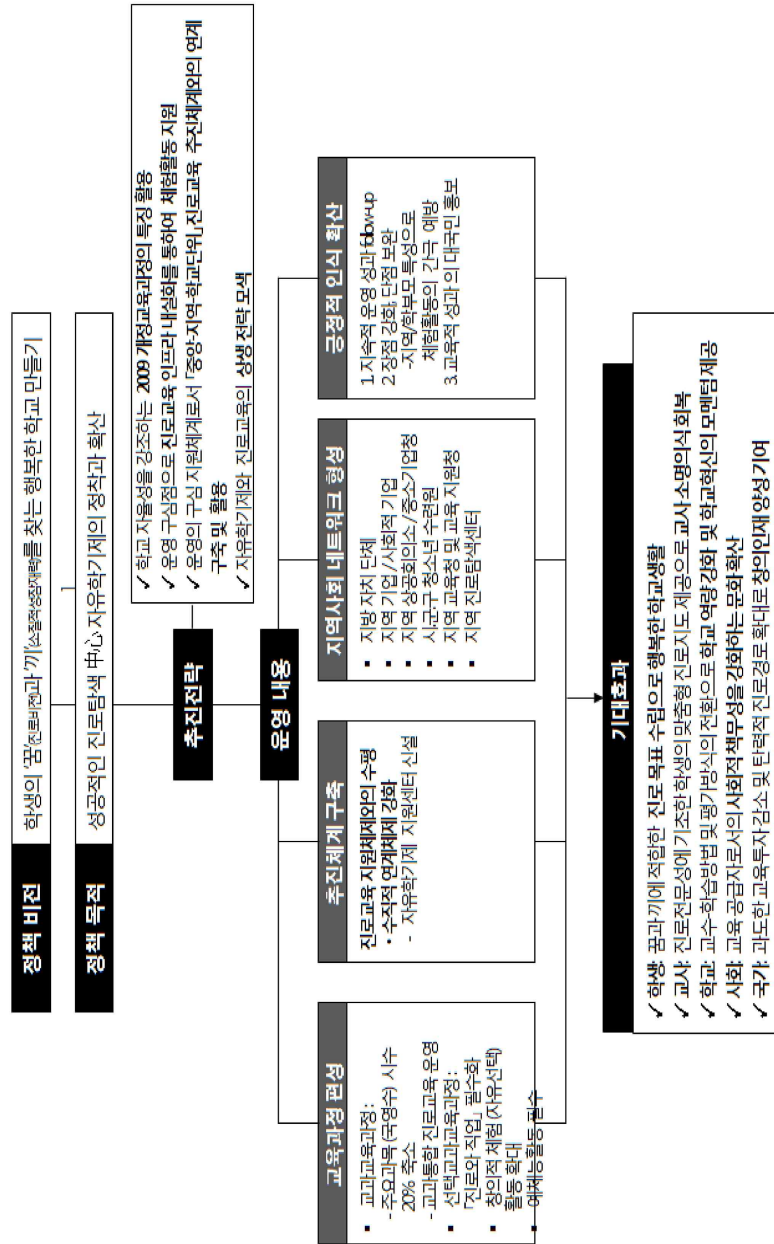
- 수준의 직업정보는 제공하나, 보다 장기적이며 생애 전반의 관점에서 요구하는 진로비전 수립과 실천에 필요한 진로개발역량 함양에는 미흡한 수준
- 「진로와 직업」 교과가 신설되었으나 여전히 선택 학교가 저조하며, 학생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창의적 진로 콘텐츠와 전문 진로인력의 부족, 그리고 ‘시간 때우기’의 백화점식 진로체험은 다양한 한계점을 노출
 -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을 학교 교육 활동에 통합되는 것을 강조하나, 교과교육이 아닌 시간을 확보하거나 학교 별 독립된 교과를 개발·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왔음.
 - 2011년부터 시작된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는 현재,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 1인 배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교 모든 학생을 1인 교사가 집중해야 하는 업무 과중으로 인력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

○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의 필요성

- 따라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하여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간 축적된 R&D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는 「win-win」 전략 필요
- 자유학기제 시행 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발달 단계에 따라 진로인식·탐색·준비 등을 강조함. 초등학교 단계는 진로인식을, 중학교 단계는 진로탐색을, 고등학교 단계는 구체적인 진로계획과 준비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이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로 알아 꿈과 끼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직업세계의 다양한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일’을 체험함으로써 학교 졸업 후, 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명료한 삶의 목표를 갖도록 도와주는 진로개발 과정 중의 하나임.
- 중학교 진로발달 단계에 적합한 진로탐색의 강조는 학생들에게 다음의 학습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 자신을 성찰(장·단점, 소질과 적성)함으로 긍정적 자기이해 증진
 - ✓ 일과 직업세계의 변화와 요구하는 역량의 이해
 - 올바르게 긍정적인 언어사용 습관화

-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함양
-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 기준 확립
- 공동체 협력의식 증진
- 건강한 직업가치관 확립 등
- ✓ 진로비전 수립에 따른 잠정적 진로의사결정
 - 진로탐색을 위한 효과적 방법 획득
 - 진로효능감 (career self-efficacy) 함양
 - 학습동기와 몰입 증진
 - 일탈행동 감소

III. 자유학기제 운영 목적 및 기본방향



○ 자유학기제 정책비전 : 학생의 꿈(진로비전)과 끼(소질·적성·잠재력)를 찾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자유학기제 정책 목적(Goal)

- 성공적인 진로탐색 中心의 자유학기제 정착과 확산

○ 자유학기제 운영 목표(Objective)

- 진로탐색 中心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꿈(진로비전)과 끼(소질·적성·잠재력)를 탐색·발견하는 학습 기회 제공
- 개인 삶 전체의 맥락에서 「학습-진로-일」 간의 상호연계성을 이해하고 직·간접적 체험을 강조함으로 행복한 삶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
- 21세기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인성을 갖추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으로의 혁신 실현(시작)

○ 성공적 자유학기제 운영의 6대 기본 방향

- ① 학업스트레스로부터 학생들이 학습동기를 찾고 학습 재미를 발견하도록 지원
- ② 학습공급자(교사) 중심의 수업방식으로부터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교수-학습방법 활용
- ③ 주요 교과목 중심의 교육내용으로부터 전체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꿈(진로비전)과 끼(소질·적성·잠재력)를 찾도록 도와주는 교육내용 포함
- ④ 교과서·교실 중심의 학습 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전체 지역사회와 삶의 현장 속 학습 환경 조성
- ⑤ 지필고사와 같은 시험 중심 평가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자신의 진로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주목하는 학습중심 평가 방안 적용
- ⑥ 교과목 담당 학교 내 교사 인력으로부터 학교 밖 학부모, 전문 직업인, 퇴직 은퇴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인력의 적극 활용 및 확대

[그림 3] 자유학기제 운영 기본방향



○ 자유학기제 운영의 추진전략

- ✓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범위가 확대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활용
 - 첫째,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재설정,
 - 둘째,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 셋째, 학기당 이수과목 수 축소(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
- ✓ 운영 구심점으로 기존의 진로교육 인프라(진로진학상담교사, 프로그램, 매뉴얼, SCEP⁶⁾ 등)를 적극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 지원
- ✓ 운영 구심 지원체계로서 「중앙-지역-학교단위」 진로교육 추진체계와의 연계를 구축하며 활용
- ✓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의 상생 전략 모색

6)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2012, 교육과학기술부)으로 중학교의 경우, 총 90 ~ 120시간의 가능 시수로 프로젝트, 연극, 토론, 역할놀이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중앙 단위 총괄 R&D 지원센터 역할

- 2015년 자유학기 운영 학교 선정 기준안 개발
- 2015년 자유학기 운영 학교 평가 지표 개발
- 2015년 자유학기 운영 지원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2015년 자유학기 운영 학교 컨설팅 및 안내서 개발
- 자유학기 교육적 성과 Follow-up과 지속적 정책 홍보
- 자유학기 운영 지원 인력을 위한 지속적 연수 제공 및 운영
- 자유학기 지속적 발전 방안 지원 정책 연구

-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 : 학생의 학년별 특징, 학습의 연속성, 진로의사결정 시기, 학사 운영 등의 다각적 검토 후 학교의 선택권 부여

<표 3> 자유학기제 운영시기별 장·단점

적용시기	특징 및 장점	단점
중1	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중학교로의 전환 시기 ▪ 상급학교 적응이 필요한 시기 ▪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성숙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진로인식 수준 ▪ 진로탐색中心 교육과정 적응 어려움 ▪ 초등 -> 중학교 전환과정의 혼란 가중
	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중학교 전환의 적응 시기 ▪ 1학기에 비하여 3학년 진로의사결정 준비를 위한 진로탐색 활동 필요 ▪ 2,3학년 학습 동기 제공에 적절 ▪ 자기주도적 참여 가능 ▪ 1학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자유학기제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 중학교 전환과정의 혼란 가중
중2	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시기를 거쳐 중학교 적응시기 ▪ 1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담감 감소 ▪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탐색이 가능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과 3학년의 중간 학년으로 학습 연속성 침해 가능
	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을 바라보며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 필요 ▪ 1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담감 감소 ▪ 3학년 이전에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과 3학년의 중간 학년으로 학습의 연속성 침해 가능
중3	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준비 시기 ▪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가능 ▪ 비교적 높은 진로탐색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입시 준비 ▪ 진로탐색 활동에 집중할 심리적 여유 불가 ▪ 학습의 연속성 침해 가능
	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과정의 마지막 학기 ▪ 비교적 넉넉한 시간적 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방임적 자유학기제 운영 가능 ▪ 한 학기동안의 자유학기제 운영 대신 학기말 중심의 단편적 운영 가능

- 실시 시기는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부여하되 중학교 1학년 2학기과 중학교 2학년 학기 중 운영
- ※ 초-> 중학교 전환의 적응단계이며, 3학년에 비하여 낮은 학습 부담감의 특징 반영

IV.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및 추진체계

진로탐색 中心 자유학기제 운영 교육과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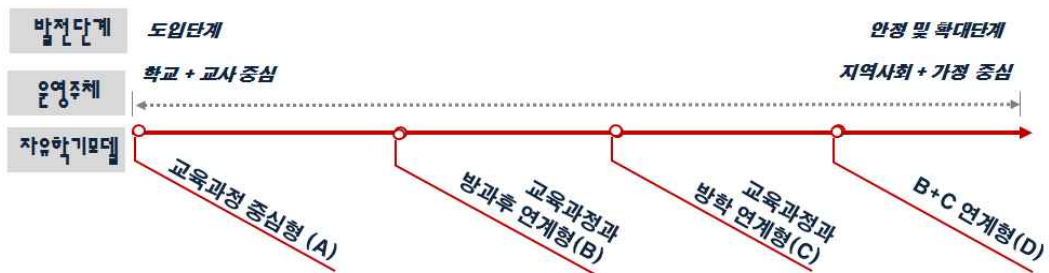
- 지역·학교·자유학기제 발전 단계에 따라 운영모델 선택
 - ① 교육과정형 ② 방과 후 연계형 ③ 방학 연계형 ④ 통합형
- 교과교육과정 : 주요과목 (국영수) 시수 20% (한 학기 약 70시간) 축소
전체 과목 수 10% 축소
모든 과목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
- 선택교과교육과정 : 「진로비전」과 「엔터프로너쉽」 신설
- 「진로와 직업」 필수화
-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 개편하여 자유선택활동을 다양하게 설치하고 시수 증대
 - ① 진로동아리 활동, ② 진로 지역자원봉사활동, ③ 일 체험활동
 - ④ 예·체능 등
- 학기당 최소 51시간 이상의 직·간접 체험 활동 필수화
- 청소년의 긍정적 에너지 발산을 위한 예·체능활동(각종 스포츠, 드라마, 연극 등) 확대 (자유학기 중 1인 학생 1개 예·체능활동 필수)
- 학급을 동아리 단위로 편성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 진로탐색 中心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4개 모델(안)

- 지역·학교 특성,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모델 선정 가능
- ✓ 교육과정형 자유학기제 모델 (A)

- ✓ 방과 후 활동 연계형 자유학기제 모델 (B)
- ✓ 방학 연계형 자유학기제 모델 (C)
- ✓ B + C 통합형 (D)

[그림 4]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별 운영주체 및 발전단계별 적용 가능성



<표 4> 자유학기제 4개 운영모델별 특징 비교

유형 구분	교육과정형 (A)	방과 후 활동 연계형 (B)	방학 연계형 (C)	B+C 통합형 (D)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주요 과목(국·영·수) 시수 축소 창의로운 체험 활동을 진로탐색 中心으로 편성하고 시수 확대 학교와 교사 중심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형(A)와 방과 후 시간을 연계하여 자유학기제를 운영 창의로운 체험활동을 방과 후 시간과 연장하여 내실 있는 운영 가능 A형에 비하여 진로탐색 시간 늘어나, 주요과목의 기존 시수 유지와 선택 가능 방과후, 예체능 활동 강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형(A)과 방학 시간을 연계하여 자유학기제를 운영 창의로운 체험활동을 방학과 연계하여 심층적인 학생들의 진로탐색 지원 가능 진로탐색 → 자기와 직업세계 이해 → 진로비전 수립 → 학습동기 회복 →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지원 가능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 탐색처 발굴을 위한 학부모의 지원 필요 예체능 활동 강화 가능 방학을 활용한 진로캠프(학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캠프, 멘토와 함께 하는 진로캠프 등)의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의 통합형으로 교과과정, 방과후, 방학 시간을 모두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인 탐색과 체험이 가능한 모델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역할이 강조 지역사회 진로탐색 학습처 개발 강조 사교육 진입 우려 감소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저하를 우려한 방과 후와 방학을 활용한 사교육 진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학습자원 구축을 위한 교사의 적극성, 열성, 전문역량 요구 교사의 부담감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학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매뉴얼 및 학습처 필요 방학중 탐색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 관련 시설 활용, 직장체험 등의 지원체제 필요 교사 및 학부모 부담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적 진로탐색 기회 부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프로그램, 매뉴얼 필요 학력 저하 우려 학교와 학부모 부담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적 진로탐색 기회 부여 가능

<표 5> 자유학기제 운영모델별 교육과정 편성 및 지원체계

구분	유형	교육과정형 (A)	방과후 활동 연계형 (B)	방학 연계형 (C)	B+C: 통합형 (D)
교육과정 편성	주요(국영수)과목	축소	*① 축소 (혁신) ② 유지 (기본)	*① 축소 (혁신) ② 유지 (기본)	*① 축소 (혁신) ② 유지 (기본)
	교과통합 진로교육운영	운용	운용	운용	운용
	장제 활동 시수	늘임	늘임 + 방과 후 시간	늘임 + 방학시간	All
	선택 교육과정 개설 「진로비전」, 「엔터프러너십」	학교 자율	학교 자율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진로와 직업」 선택	필수화	필수화	필수화	필수화
교육과정 운영	진로탐색 中心 3개 활동 선택 및 운영	필수화 (학교재량)	필수화 (학교재량)	필수화 (학교재량)	필수화 (학교재량)
	예·체능	강화	강화	강화	강화
	평가방식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평가 주체	교사+학생(자기평가)	교사+학생+외부인사	교사+학생+외부인사	교사+학생+외부인사
	평가 결과의 피드백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서비스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서비스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서비스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서비스
교육과정 지원 체계	운영 주체	학교+교사중심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 중심	All
	지역사회(기업) 참여	보통	적극 참여	적극참여	All
	교과통합 진로교육 수업운영 자료 및 도구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진로탐색중심 다양한 프로 그램과 운영매뉴얼	필요	매우 필요	매우 필요	매우 필요
	진로탐색처 개발 주체	교사 中心 (진로교사)	교사+학생	교사+학생+학부모	All
교육과정 지원 체계	핵심 지원인력	교사 中心 (진로교사)	교사+학교 밖 인력	교사+학교 밖 인력	교사+학교 밖 인력
	예산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핵심 연수 대상	교사+교장+학부모	+학교 외 지원 인력	+지역사회(기업) 프로그램 운영자	All
	교사 열정·적극성	매우 필요	매우 필요	보통(지역사회 열정)	보통(지역사회 열정)
	학부모 지원	보통	매우필요	매우필요	매우필요

-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도입 이후 부터는 방과 후와 방학을 연계한 진로탐색활동 모델이 가능

○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

- 교과통합 진로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와 ‘진로’요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진로교육
- 일반교과와 진로요소와의 통합 방식은 교과 내용속에 포함되는 진로교육 요소를 선명하게 부각하여 교과목표와 진로교육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지향
- 교과통합 진로교육은 전통적인 학교교실 수업과 달리 다음의 성과를 가짐.

- ✓ 핵심 역량 개발과 개별 교과목을 초월하는 수업계획 수립
- ✓ 세상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과 학습맥락을 확장하는 교육과정 개발
- ✓ 학습동기 촉진과 능동적인 학습과정 참여
- ✓ 실생활 맥락에서 유용한 역량 및 기술 습득과 삶에서의 자기주도성 가능

- 2008년부터 시작된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동은 현재까지 대부분 과목의 수업자료와 매뉴얼로 개발·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작업 중
- 한 학기 동안 개인 및 조별 연구 프로젝트, 발표 및 질의 응답, 역할극 등 적극적인 학습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 가능

- 진로탐색 中心의 자유학기제는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주요 교과목 시수를 축소하고 모든 과목에 대한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과 운영

예시 : 국어 : 방송 아나운서, 드라마, 연극, 자기이력서 작성 등

수학 : 삶의 맥락에서 논리적 문제해결 추론

사회 : 지역사회 탐방, 답사, 자원봉사 활동 등

과학 : 연구 프로젝트, 실험, 문제탐구 등으로 구성 가능

○ 창의로운 체험활동을 진로탐색 中心 내용으로 강조 및 시수 증대로 개편(안)

(한 학년 34주 : 204시간 -> 한 학기 17주 x 6시간 : 102 시수)

현재(한 학년)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中心 창체 활동(자유선택) 개편(안)	
	자유활동 39		진로 동아리 활동 (시수) 51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시수) 33		진로지역봉사 활동(시수) 51	
	봉사활동(시수) 11		일 체험 활동(시수) 51	
	진로활동(시수) 19		예·체능(시수) 51	
체험활동 계 (학년단위, 시수) 102		➡	체험 활동 계	204

7)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 모델 및 자료 개발 (2008-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창의로운 체험(자유선택) 활동의 사전-사후와 연계된 상담서비스 강화

- 자유학기제 동안 심리검사를 통하여 꿈(진로비전)과 끼(소질·적성·잠재력)발견
-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탐색 활동 선택 지원
- 진로탐색 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진로관점의 수행평가
- 체험한 진로탐색 활동과 학생의 진로목표 수립과의 연계 지원 상담 강화

[그림 5] 진로탐색 中心 자유학과 진로상담 관계



○ 창의로운 체험 활동 : 진로동아리, 진로지역자원봉사, 일 체험

- ✓ 진로 동아리 : 또래 친구들과의 주기적 집단 활동
- ✓ 진로 지역자원봉사 : 지역사회안 관심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
- ✓ 일 체험 : 직·간접적인 일 체험 활동

<표 6> 창의적체험 (자유선택) 활동별 운영방식 및 운영내용

구분	진로 동아리	진로 지역자원봉사	일 체험	예·체능
목적	① 진로에 대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습활동을 하는 교육환경 제공 ② 유사한 진로동기를 갖춘 집단 안에서 적극적인 탐색 활동을 나누고 공동 (협업)작업을 전개하도록 지원 ③ 정확한 진로정보, 구체적 준비 방법 등을 위한 학습자원 제공 ④ 진로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대처방안을 학습하도록 촉진	① 소속된 지역사회의 일과 직업 세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 향상 ②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봉사 와 헌신의 가치 체험 ③ 특정 직업에 대한 외·내재적 직업가치 이해	① 일 체험이 가능한 일터를 찾는 학생들의 적극적 태도 및 역량 강화 ② 직·간접적인 일터(직장) 체험을 통하여 일 가치와 소중함 체득 ③ 일의 의미와 행복한 삶의 관계성 확인 ④ 직·간접적인 일 체험을 통한 자기 성찰 및 진로비전 수립 - 전달방식 : 직접적인 일 체험과 직업인과의 멘토링 활동	① 예·체능 분야의 진로탐색 ② 예·체능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긍정적 에너지 발산 및 재능 개발
전달 방식	집단원간의 역동적인 ‘나눔’ 과 자기주도적 활동 참여	직접적인 자원봉사 활동	일터 체험 (직접 체험) 직업전문인과의 멘토링(간접 체험)	직접 체험 (스포츠팀 및 예술활동)
활동 내용 (안)	다양한 동아리 구성으로 유사한 꿈과 끼를 같은 포맷별 집중 탐색 ① 심리검사 결과에 기초한 흥미 (RIASEC)별 ② 관심 직업분야별(과학,공학,문학, 예술,서비스,언론 등) ③ 도전 직업별(교육컨설턴트, 콘텐츠마케팅디렉터 등) ④ 신생 직업별(예술치료사, 생물통계학자, 댄스치료사, 주택코디네이터 등) ⑤ 직업세계 트렌드별(그린잡, 문화·웰빙, 첨단기술·IT, 치유와 돌봄 등)	① 전문 직업(학교, 병원, 법원, 경찰 등)에서 봉사하기 ② 시·군·구·동사무소에서 봉사하기 ③ 고아원, 노인요양원 등에서 봉사하기 등	① 일 체험 장소 개척하기 ② 일터에서 나의 멘토 찾기 ③ 일 체험을 통한 나와 진로성찰 하기 등	예·체능활동 (각종스포츠, 드라마, 연극 미술 등) (자유학기 중 1인 학생 1개 예·체능활동 필수)
기대 효과	또래와 함께 관심있는 분야의 재미있는 진로정보 탐색	자원봉사를 통한 적극적 삶의 태도와 봉사·헌신의 가치 체험	일 체험터를 발굴하는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와 전문 직업인의 삶 이해	재능발견 및 개발, 건전한 청소년 에너지 발산
프로그램 및 매뉴얼 내용 예시	① 동아리 정의 및 목적, 동아리 기대효과, 성공적인 동아리 운영 핵심 요소 ② 동아리 준비단계: 동아리 운영 계획 및 준비, 홍보와 모집 ③ 동아리 운영단계: 친교 형성, 정보수집 및 활동, 회기별 나눔 ④ 동아리 사후단계: 동아리 활동 평가 방법 및 집단원 피드백 주기	① 지역 자원봉사 가능한 조직 알아보기 ② 자원봉사 의미와 가치 이해 하기 ③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요구 자질과 핵심역량 확인 하기 ④ 자원봉사 활동이 자신의 진로 관에 미치는 영향 되돌아보기	① 일 체험이 가능한 일터 발굴하기 ② 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 마케팅 하기 ③ 일터에서 요구하는 규칙, 기본자질, 핵심역량 이해하기 ④ 일터에서 멘토 찾아보기 ⑤ 멘토에게 질문해야 하는 리스트 만들기 ⑥ 일터 체험이 자신과 진로성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하기	① 자신에게 적합한 예체능 선택하기 ② 특정 분야별 활동 목표 및 규칙 설정 하기 ③ 활동결과 평가하기

○ 선택 교과(안) : 진로비전과 엔터프러너십

- ✓ 「진로비전」 : 진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과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
- ✓ 「엔터프러너십」 :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창업정신과 창업과정의 교과

<표 7> 선택 교과목별 목적 및 기대효과

구분	진로비전	엔터프러너십
목적	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가?의 해답 제시 ② 진로목표 수립을 위한 과정과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 함양 ③ 진로목표 수립과 진로계획과의 관계성 이해 ④ 구체적 실행과 평가, 진로수정의 과정과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 함양	① 창업과 창업가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② 창업과 창업 준비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및 기술 함양 ③ 창업가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 ④ 자신의 진로와 창업과의 구체적 연계성 모색
전달방식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차별되는 개별·조별활동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차별되는 실제 모의창업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
기대효과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의 교육효과 지원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의 교육효과 지원

○ 학급 단위를 동아리로 편성하여 운영

- 별도의 특정 학기를 통하여 운영되는 자유학기는 학급단위를 동아리로 재편성하여 유사한 꿈과 끼를 갖는 또래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탐색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고려
- 동아리 단위 학급 장점
 - ✓ 담임교사의 탐구·체험활동 지도 노하우 및 전문성 축적
 - ✓ 학급 단위별 친밀한 협업 활동 및 창의적 탐구·체험 활동의 효율성
 - ✓ 유사 꿈과 끼를 갖는 또래간의 적극적·주도적인 상호 학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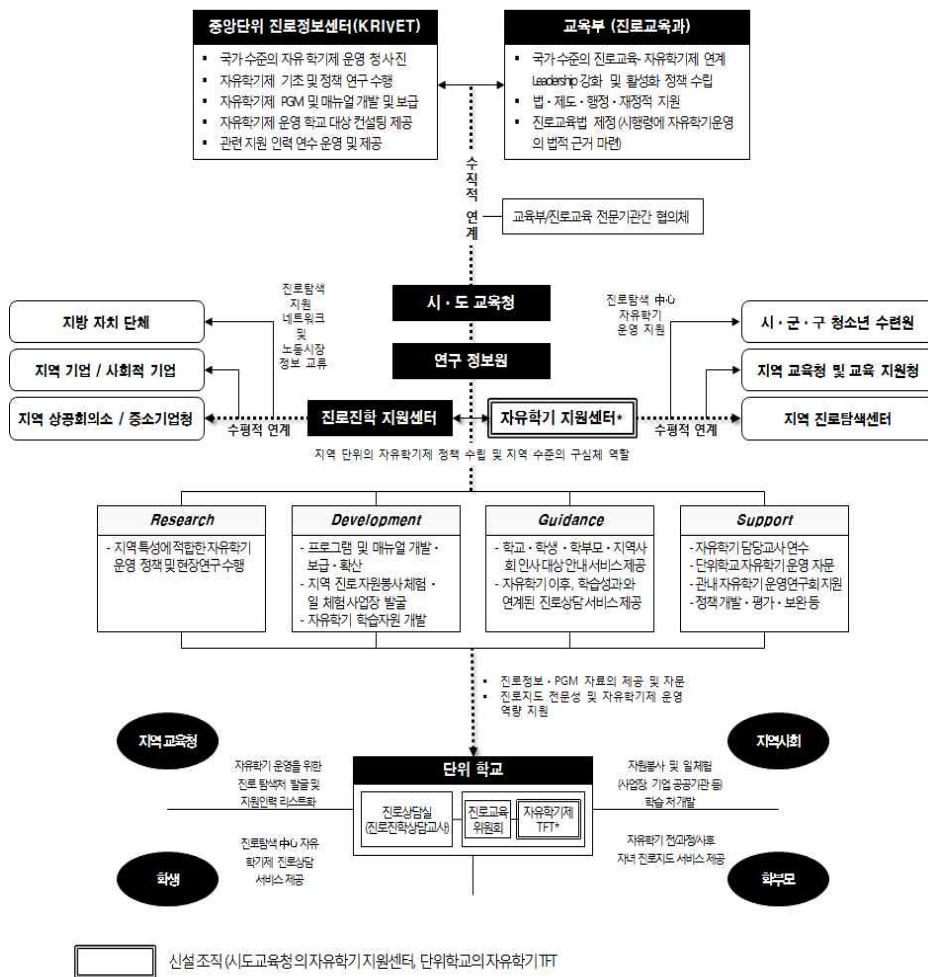
○ 자유학기제 운영 추진체계 : 진로교육 지원체제와의 수평·수직 연계체계 강화

- 중앙단위의 R&D 센터와 교육부의 해당 부처와의 수평적 연계 확립
- 중앙수준·시도교육청·단위학교 간의 수직적 연계 체제 확립
- 지역수준의 시도교육청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기존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혹은 진로교육지원센터)와의 긴밀한 연계 활동

- 단위학교는 기존의 진로상담실과 진로교육위원회를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TFT 신설

- 기존의 진로교육 지원체제와의 수평·수직적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 내실화 지향

[그림 6] 진로교육 지원체제와 연계된 자유학기 추진체계



○ 자유학기제 운영 인력 : 학교 안 · 밖 인사 활용 확대 및 지속적 연수 제공

- 학교 내 인력
 - ✓ 교사
 - ✓ 진로교사 (진로진학사담교사) (100명이상 학교에 진로교사 배치 90%완료, 향후 확대 필요)
 - ✓ 전문상담교사
 - ✓ 커리어코치
 - ✓ 학부모 코치(모든 학교에 「학부모진로코치단」 구성 총 5만명 양성 예정)
 - ✓ 학부모 상담 자원 봉사자
- 학교 밖 인력
 - ✓ 은퇴 전문가(교사, 의사, 변호사, 교수, 숙력기술인 등)
 - ✓ 전문 직업인
 - ✓ 지역사회 인사
 - ✓ 학교 동문 유명인
 - ✓ 학생들이 직접 발굴한 멘토 등

○ 자유학기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학습자와 자유학기 운영 관점)

- 자유학기제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은 ①교과통합 진로교육 교과수업, ②진로탐색 中心 창의로운 체험활동, ③선택교과, ④예체능활동 등으로 구성되므로 각 과 활동의 구체적 특성에 적합한 평가 도구가 필요
- 하지만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① 학업성취 수준(학생)과 ②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의 발전을 향상시키는(학교) 두 가지 관점 접근 필요

■ 학업성취 수준 관점의 경우

- ① 학습자는 교과(활동) 학습에 대한 흥미 · 관심의 정도가 증가하였는가?
- ② 학습자는 교과(활동) 학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준비도(주의집중, 학습목적

- 지향성, 자신감, 만족감 등)가 향상 되었는가?
- ③ 특정 교과(활동)의 교육목표와 진로교육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
- ④ 학습자는 교과(활동)을 통하여 다음의 항목에 변화를 보였는가?
 흥미의 다양화 및 구체화, 진로대안의 확장,
 진로의사결정의 구체성 및 합리성, 진로계획의 현실성 등

-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단순한 지필 검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관찰, 조사 보고법, 면접법, 질문지법, 토의법, 포트폴리오법 등을 고루 활용하여 자기평가 또는 집단평가를 실시

- 자유학기제 운영 전반의 관점에서는 ① 단위학교의 자유학기 운영 목표 진술, ② 자유학기 운영 과정, ③ 자유학기 운영 전반의 총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자유학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평가 필요

<표 8>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 발전을 향상시키는 관점의 평가 체크리스트(안)

1. 자유학기 운영 목표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탐색 中心 자유학기의 목표는 전반적인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학습목표와 진로탐색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명확하게 진술되었는가?
2. 과정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학교안·학교 밖)을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들은 교과 교육과정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자유학기 운영을 위하여 지원인력을 위한 사전 연수가 제공되었는가? 자유학기 운영 과정에서 지원인력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결 대안은 무엇인가?
	교수·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되었는가? 학습성과는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연결되었는가? (진로상담서비스)
	학습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 운영 과정에서 활용한 학습자원(인적·물적자원, 시설·설비, 교재 및 교구, 아이디어 등)의 접근성이 학습자에게 용이하였는가? 자유학기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자원이 적절하게 개발·활용되었는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었는가?
3. 종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 교육과정은 전 교사 및 학교 밖 지원인력들과의 협동과 공감대를 이루며 이루어졌는가? 학습자의 평가결과는 진로지도서비스와 연계되어 피드백이 되는가? 다양한 수행 평가 방식이 개발되고 활용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탐색 中心 자유학기를 고려한 활동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습자의 진로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수행평가와 학생의 진로성숙에 주목하는 학생부 기록 (예시)

- 기본 교과 (교과통합 진로교육) 평가 및 학생부 기록 (예시)

(평가) 기본교과의 경우, 현재 지필(중간, 기말고사) 및 수행평가 반영 비율에 따른 환산 점수 합계인 원점수로 성취도를 산출하고 있으나, 수행평가로 100% 평가

- 학업성취 수준의 관점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가산점
- 학습활동 참여도, 태도 등 특기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입력하는 현행 방법 동일 적용 가능

(학생부 기록) 석차는 삭제하되, 1학년의 경우, 'A-B-C-D-E'로 표기

- 선택 교과교육과정 「진로비전」, 「엔터프러너십」 평가 및 학생부 기록 (예시)

(평가) 이수여부를 'P'로 평가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특기 사항을 문장으로 입력하는 현행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

[그림 7] 학생 진로 관점에서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기록부 예시

〈성취평가제 적용 중학교 1학년 평가 예시〉		
과목	1학기	
	이수시간	이수여부
「엔터프로너십」	00	P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예시)
「엔터프로너십」	심리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창업 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창업준비과정에 대한 조별 프로젝트에 리더를 맡아 조원들의 의견을 잘 종합하고, 발표하였음. 특히, 프로젝트를 위하여 창업분야를 직접 방문하고 사업주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조원들과 논의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음. 높은 책임감, 성실함이 돋보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진로성숙을 보였으며, 향후 진로결정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함.

■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학생부 기록 (예시)

(평가) 3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여 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 혹은 자기평가, 집단평가 가능

※ 3개 영역 : 진로동아리활동, 진로 지역자원봉사 활동, 일 체험 활동

(학생부 기록)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 란에 학생이 활동에 참여한 정도와 성과와 특이사항에 대한 진로상담 결과, 실적, 진로결정의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기재(학습자 흥미의 다양화 및 구체화, 진로대안의 확장, 진로 의사결정의 구체성 및 합리성, 진로계획의 현실성 등에 주목)

○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학습 생태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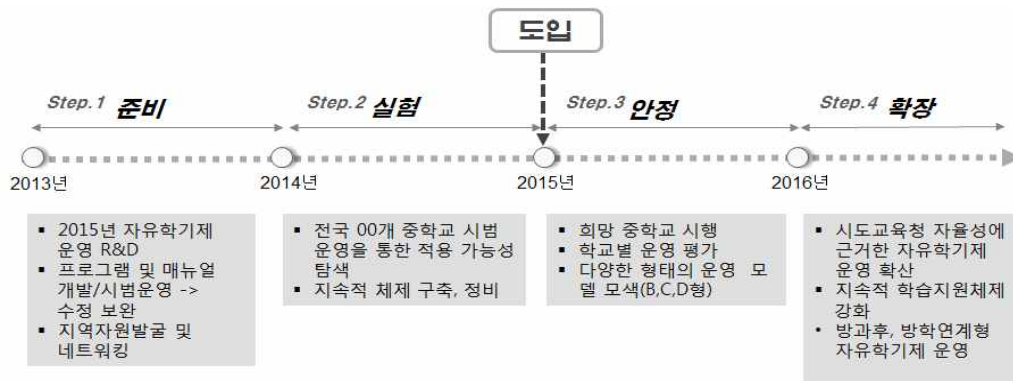
-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 밖 학습자원 발굴 필요
- 지자체, 기업, 사회적 기업, 지역교육청, 지역 진로탐색지원 센터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학습의 장과 기회 제공
-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인식 확대

- 2013년부터 시작되는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운영 결과의 FOLLOW-UP
- 장점의 강화와 단점 보완을 위한 전략 강구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교육적 성과 보급/확산
- ‘꿈과 끼’를 찾고 키우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 회복의 자유학기제 홍보

○ 자유학기제 발전 단계별 추진 목표

[그림 8] 진로탐색 中心 자유학기의 발전단계별 목표



- 자유학기제 성공적 도입을 통한 진로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

V. 기대효과

○ 학생 : 학생들의 명료한 진로 목표수립으로 행복한 학교생활

-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심층적으로 자기와 진로탐색을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 학생들은 왜·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진로 목표의식이 수립되고 성취감을 경험함으로 진로효능감 상승과 학생의 일탈행동 감소를 기대
- 더 나아가 창의적인 진로경로 선택으로 맹목적인 대학진학을 낮추어 행복한 학생·교사·학부모 문화 확산 가능

○ 교사 : 진로전문성에 기초한 학생의 맞춤형 진로지도 제공으로 교사 소명의식 회복

-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진로교육 지원 인프라의 내실화 강화로 교사들은 교과목에 한정된 역할이 아니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지도를 제공하는 환경이 가능하여 교사의 소명의식 회복

○ 학교 :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식의 전환으로 **인성 함양 및 창의인재 양성에 이바지**

- 진로탐색 중심의 진로교육 내실화로 지식전달 중심의 일방향 강의에서 쌍방향의 토론과 프로젝트 등의 도입과 생생 진로체험의 교수학습방법이 도입되어 긍정적 대인관계, 문제해결, 합리적 갈등관리 등의 역량이 향상
- 시험 중심이 아닌 학습중심 평가체제 변화로 성적순에 의한 과대한 또래 경쟁의식에서 공동체 협력의식과 자기성찰 등의 역량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감소 및 창의 인력 양성에 이바지

○ 지역사회: 교육 공급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문화 확산

- 학교 밖 지역사회를 학습자원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개인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학생들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의 실질적인 학습으로 창의인재로 성장 가능

○ 국가 : 과도한 교육투자 감소 및 탄력적 진로경로 확대로 **창의인재 양성 기여**

- 진로탐색 中心 자유학기를 통하여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의 열기를 재검토할 수 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교육 기회 선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일방향의 대학진학 혹은 인기 학과선택의 경향성 감소를 기대
- 진로탐색을 통하여 준비되고 계획된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진학중심의 일방향이 아닌 다방향의 창의적 진로경로 개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청년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 감소에 기여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5.3). 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2.5.3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6.18). 진로교사배치. 2012.6.18 보도자료.
- 이지연 외(2012). 직업능력개발의 비전과 과제, 5장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 진미석 (2013). 신정부 고용 · 능력개발정책의 비전과 과제:당선인 공약실천 사항과 관련을 중심으로
- 이지연 (2009). 생애설계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 진로교육 혁신 : 입학사정관제 정착과 연계를 중심으로. BH 보고자료.
- 이지연, 이영대, 정운경, 최동선, 김나라, 장석민, 정영근, 남미숙, 이진남(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외(2001). 『한국의 진로정보 · 지도 및 상담서비스 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2000). ‘새천년을 대비한 학교체제 안에서의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방향’, 직업과 인력동향, 5월호.
- 이지연(2002). 『OECD 진로정보 · 지도 및 상담 서비스 정책 협력사업(II)』.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2009). 과도한 대학진학 억제와 직업기술교육 확대를 위한 진로교육 혁신방안 : 교과통합 진로교육. BH 보고자료
- 이지연, 정운경, 이종범(2010).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최동선, 정일동(2005). 초중등 진로직업교육 혁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운경 · 김나라 · 서유정 · 조희경(2012). 초 · 중등단계 진로지도상담교사의 역할과 진로교육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G. Watts, Killeen, Kidd & Hawthorn(1996). Rethinking 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 T.J press ltd.
- Buzan, T. & Busan, B.(1999). *The mind map book*. London: BBCBooks.
- CEDEFOP (2004). *Guidance policies in the knowledge society*. Trends, challenges and responses across Europe. A CEDEFOP Synthesis Report.

- CEDEFOP(2004). Guidance policies in the knowledge society: Trends, challenges and responses across Europe. A CEDEFOP Synthesis Report.
- Lee, Ji-Yeon.(2011) 'Trends & Issues of Career Education in Korea', CDAA(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of Australia) International Career Conference (26-29 April 2011, Cairns, Australia
- OECD (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Making Transitions Work, Paris: OECD
- OECD (2002). Why Career Information, Guidance and Counselling Matter for Public Policy Working Draft #1
- OECD(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Paris: OECD.
- OECD/CERI (1996). Mapping the Future. Young People and Career Guidance, Paris: OECD.

<부록 1> 학습자(학생) 중심을 강조하는 진로교육 교수·학습 방법

교사 중심

학습자 중심

교수유형	직접교수	간접교수	상호적 교수	체험학습	독립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강의명시적 교수비교·대조설명지시적 질문구조화된 개관숙달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시장 조사- 인터뷰문제해결그래픽 작성사례연구개념형성개념획득개념지도화비판 채우기K-W-L	<ul style="list-style-type: none">질의응답브레인스토밍지식의 순환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뮬레이션<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경영- 사무실 시뮬레이션- 구직 시뮬레이션- 모의 인터뷰- 가상방문역할극지역사회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장학습<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워크숍- 직업현장체험- 기업방문- Career fair 참여자원봉사활동직업판찰학습 프로젝트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체험·경험행동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훈련과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습활동 패키지연구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회적 관계형성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토론질의응답협동학습집단스토리텔링포데준련지식의 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역할극초점 이미지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여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기개념개발, 개인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프트웨어 활동- ICT 모듈 심리검사직업현장 체험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진로상담제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저널·블로그직업현장체험보고회

*원자료: 이지연 외(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록 2> 외국의 진로탐색 中心 자유학기제 모델 사례

'자유학기제' 모델	주요 내용														
1. 아일랜드 <u>전환학년제</u>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경쟁, 주지교육 중심의 학습체제 극복을 위해 1974년 도입 전환학년제는 중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1년간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u>자유롭게 세상과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u> 제공 <u>40년간의 지속적인 지원</u>으로 2010년 75% 이상의 학교 참여, 전체 학생 중 53%가 참여 전환학년의 교육과정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u>필수과목 계열</u>: 5, 6학년 단계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졸업시험 과목(영어, 수학, 외국어)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 <u>선택과목 탐색 계열</u>: 5, 6학년에 개설된 선택과목 가운데 학교 혹은 개인의 관심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부 <u>자유 관심 계열</u>: 학교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의 관심에 따른 과목 개설(ex. 심리학, 건축학, 갈등연구, 영화연구, 미디어, 리더십, 창업, 주식, 요리, 웹디자인, 작곡, 연기 등) <u>체험 및 활동 계열</u>: 초청강연, 패션쇼, 직업 체험, 봉사활동, 외국여행,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한 <u>학교의 자율성</u> 보장 교육과정 선택 및 운영에 있어서 <u>학생과 학부모의 의사 존중</u> 학교마다 <u>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운영자</u>가 있고,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 <u>외부 단체 및 사회 기관들과의 협력</u> 대체로 <u>포트폴리오 형태로 개개인이 했던 것을 보고하는</u> 형식으로 성적으로 환산하지 않음. <table border="1" data-bbox="507 1093 1318 1303"> <thead> <tr> <th>교육 효과</th><th>문제점</th></tr> </thead> <tbody> <tr> <td>✓ 자기성찰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td><td>✓ 각 학교의 변칙과 변용 가능성</td></tr> <tr> <td>✓ 실제적 체험활동의 강조</td><td>✓ 전환학년제 과목과 기존의 과목과의 비일관성, 전환학년제 활동들을 파편화</td></tr> <tr> <td>✓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td><td>✓ 교사의 역량이 주요 관건</td></tr> <tr> <td>✓ 교과와 진로개발역량 연계</td><td>✓ 전환학년제 평가에 관한 문제</td></tr> <tr> <td>✓ 교사의 자발성·전문성·열정</td><td></td></tr> <tr> <td>✓ 진로교육 지향성</td><td></td></tr> </tbody> </table>	교육 효과	문제점	✓ 자기성찰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	✓ 각 학교의 변칙과 변용 가능성	✓ 실제적 체험활동의 강조	✓ 전환학년제 과목과 기존의 과목과의 비일관성, 전환학년제 활동들을 파편화	✓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 교사의 역량이 주요 관건	✓ 교과와 진로개발역량 연계	✓ 전환학년제 평가에 관한 문제	✓ 교사의 자발성·전문성·열정		✓ 진로교육 지향성	
교육 효과	문제점														
✓ 자기성찰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	✓ 각 학교의 변칙과 변용 가능성														
✓ 실제적 체험활동의 강조	✓ 전환학년제 과목과 기존의 과목과의 비일관성, 전환학년제 활동들을 파편화														
✓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 교사의 역량이 주요 관건														
✓ 교과와 진로개발역량 연계	✓ 전환학년제 평가에 관한 문제														
✓ 교사의 자발성·전문성·열정															
✓ 진로교육 지향성															
2. 덴마크 <u>에프터스쿨</u>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교의 일종으로서, 공립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 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형 자유학교 에프터스쿨은 같은 나이의 덴마크 학생들이 30% 정도 있는데, 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u>자아를 찾고 진로를 탐색</u>하거나 <u>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u> 교육과정은 주로 음악, 미술, 체육 등 <u>감성교육과 단체 활동</u>으로 구성되지만 <u>구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u> 														
3. 핀란드 <u>학점제 및 평생교육과 연계된 직업교육제</u>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단계가 <u>인문고등학교</u>와 <u>직업학교</u>로 나뉨. <u>인문고등학교는 무학년 학점제</u>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자신의 자아를 찾거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가능(대부분의 학생들은 3년 내지 3.5년 정도 걸려서 졸업) <u>직업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과 평생교육이 결합된 개방된 형태</u>를 가짐. 핀란드의 <u>직업학교</u>는 한 학교에 전공이 20개가 넘는 <u>대학 이상의 큰 규모</u>를 유지, 매우 <u>다양한 직업 훈련 영역을 포함</u> 														

주 : 1)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적용 방안 연구, 김나라·이지연·정윤경 외(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3) 정명오(2013)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교사모임(2013.02.20.) 토론회

<부록 3> 자유학기제 관련 쟁점 및 진로교육관점의 대응

쟁점 주제	논의 내용 및 진로교육관점의 대응 방안
자유학기제의 목적(협의의 진로교육 vs 광의의 진로교육 ¹⁾)이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70.8%가 자유학기제의 목표가 전인교육에 있다고 봄. 따라서 자유학기제 시행 목적으로 광의의 진로교육이 적절²⁾하다는 결과 -> 진로교육관점의 지지 진로탐색중심의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의 원원전력³⁾
자유학기제, 구체적인 시행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시행 대안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1 전환학년제: 고등학교 1학년은 전환학년으로 운영하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현재의 고교 교육과정으로 운영 공립형 진로탐색 대안학교: 고교에 입학하기 전 1년간 진로탐색을 도와주는 일종의 '과건' 학년제' 형태의 학교 제시 진로탐색 휴학제: 중·고등학교 과정 언제라도 진로탐색을 위해 휴학을 허용하고 휴학 기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의 교육 모델 벤치마크 한 학기에 집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연속성·지속성·체계성을 갖춘 진로교육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해야 함²⁾.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의의 진로교육은 '1학년 2학기'가 적합 반면, 협의의 진로교육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가 적합²⁾. 교육의 연속성과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시행을 초·중·고교 학년 말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⁴⁾
자유학기제 단계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제도를 바탕으로 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단계적 도입²⁾ 도입단계에서 비교과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늘리고 진로동아리, 진로체험 같은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 편성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농·어촌 지역처럼 기업과 연계한 진로탐색이 어려운 학교들은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성 있음.²⁾ 안정단계에서 진로에 맞는 교과 선택 자율성 강화, 진로탐색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개인별 성과를 대학 입학과 연계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과의 차별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2년 제정된 자유학습의 날은 학습부담 경감에 기여했으나, 제도의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감,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의 부족, 교육여건의 불비 등으로 문제 발생⁵⁾ 1995년 시행된 책가방 없는 날은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 부재, 제한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문제⁶⁾ ※대응방안 : '자유학습의 날'과 '책가방 없는 날'은 초등학생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었으며 70년대의 교육환경과 현재의 교육환경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 현재의 교육환경의 경우, ①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에 진로교육 강조, ②정책시행의 중심점이 되는 교과부 진로교육과 신설(2010), ③정책시행의 추진인프라가 되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2011), ④법적 근거에 기초한 진로교육 운영(진로교육진흥법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될 예정) 등
자유학기제로 인한 사교육 증대, 학력저하 문제와 성공적 자유학기제를 위한 진로교육 인프라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학습 혹은 사교육 학기제로 변질될 우려⁴⁾ 필기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력저하 우려⁴⁾ 자유학기제, 충분한 진로교육 인프라에 대한 요구³⁾ ※대응방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의 활동내용, 활동 결과물에 대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객관적 평가 방법 마련 ② 자유학기이후의 총합적 진로교육 연계 청사진 제안 필요예). 교과통합 진로교육 강화 ③ 다양한 자유학기제 편성·운영 모델 매뉴얼 개발·보급 ④ 학교, 교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의 주도적 참여와 연계 협력을 유도하는 국가 지원 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육적 이점에 대한 논리와 지속적 인프라 구축 ⑥ 교육과정 조정, 일반교사의 연수, 학교생활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의 우선 과제 해결

주 : 1) 협의의 진로교육: 직업체협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광의의 진로교육: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 체험 등을 통해 인성, 사회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함양(헤럴드 경제, 2013.02.26)

2) 좋은교사모임(2013.02.20)토론회(경향신문, 2013.02.25; 헤럴드 경제, 2013.02.26)

3)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2013.02.07)토론회(연합뉴스, 2013.02.07)

4) 중앙일보(2013.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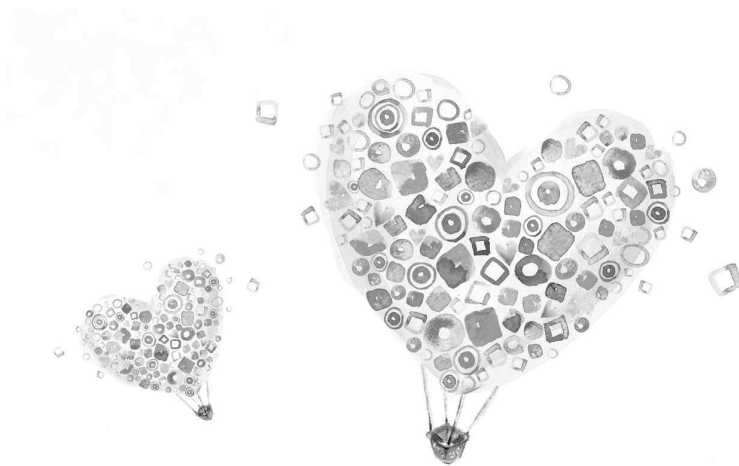
5) 유제순(2011), '자유학습의 날'의 운영에 관한 연구, 11(4), 293-322

6) 임채성, 이정구(1996), 초등학교 책가방 없는 날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자연과를 중심으로, 科學教育研究 21, 81-102

주 제 발 표

자유학기제: 주요쟁점과 이슈

진 미 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 주요쟁점과 이슈

진 미 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들어가는 말

신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중의 하나로 학생들의 끼와 꿈을 살려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제시되었다.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정과제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에 반영되었다. 자유학기제는 통상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과 입시경쟁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라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연구기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논의가 분분하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에서 제시된 문건에서는 주지교과목과 입시준비 위주의 학습방법의 전면적 혁신,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활동의 확대,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는 진로탐색 강화 등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역시 이들의 핵심요체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서로 병렬적인 관계인지 혹은 상하 포함의 관계인지, 무엇이 핵심중의 핵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들은 각각의 전문성이나 관점에서 조금씩 다른 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학교와 직업세계의 연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전문성을 축적해 온 필자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시 두세 개의 핵심요제를 연계하는 진로교육의 관점으로 이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관련 기관들 간의 논의나 여러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의 결과를 보면서 필자는 어쩌면 자유학기제의 본질은 다양한 자율적 운영의 모습, 즉 자유학기제가 함의하듯이 자유롭고 다양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판단도 든다. 한두 가지의 틀로 정형화시키는 것이 그 본연의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에 대한 합의하에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단위학교에서 구현되는 모습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지만, 국가정책으로서의 자유학기제의 목적이나 구현되는 원형으로서의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면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번 포럼이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자유학기제의 기본적인 방향을 짚어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어떤 행복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 방향성을 찾아보고, 자유학기제를 구현하는 한 가지 모형으로서 진로탐색형 자유학기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가 불러일으키는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왜 자유학기제인가?

‘확장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이 정책의 방향성과 실천을 이끌어 가는 첫 번째 작업이다. 우선 자유학기제 명칭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왜 자유학기제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무엇이 속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입시, 필기시험 준비라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경쟁이라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왜 공부하는 지도 모르면서 마구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목적 없는 학습으로부터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인가? 자유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무엇을 위한 자유가 필요한 것인가?

자유학기제는 입시와 공부에 몰두하여 제대로 된 인성발달이나 진로탐색의 기회가 없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유와 자유를 주어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하자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주장에 대하여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긴장과 경쟁의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함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여 행복하게 만들자는 생각에 누가 반대를 할 수 있을까? 특히나 도를 더해가는 학교폭력사태, OECD 최저라는 청소년 행복지수 등 작금의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주장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돌아와서 이 시대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주장이 순진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과 정책이 수용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형태로 구현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훌륭한 정책이란 정책 대상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야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이 그러하지만, 특히 교육정책은 정책 입안자의 생각과 정책대상자의 생각이 동일한 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원론적 입장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은 학부모(혹은 자녀)들의 행복에 대한 믿음과 정책담당자의 믿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의 행복에 대한 부모나 기성세대의 주장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

<표 1> 행복의 유형

학령기\학령기이후	즐거움(행복)	괴로움(불행)
학령기	I. 확장된 행복	II. 유예된 불행
학령기이후	III. 유예된 행복	IV. 지속적 불행

첫째는 유예된 행복이다. 기성세대가 그러했고 지금 학생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중고등학교 시절 인내하고 고생을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행복이다. 그러나 이 행복은 청소년기는 미래를 위한 준비기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나름의 온전한 중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소중한 기간이며,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시기의 행복은 그 다음의 삶의 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더욱 큰 문제는 과연 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최근 ‘88만원 세대’, ‘이태백(청년가운데 절반은 백수라는)’, ‘비정규직의 범람’ 등의 사회현상이 나타내주는 어려운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설득력 있는 비판이다.

두 번째는 유예된 불행이다. 유예된 행복과 반대로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여유를 주면서 행복한 청소년기를 갖도록 해주지만, 막상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는 단지 불행이 늦추어지는 상황이다. 아이들을 억누르는 제도교육대신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대안교육을 선택한 부모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다수의 부모들에게 자칫하면 자유학기제와 같은 실험 기간은 유예된 불행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행복함과 즐거움이 그 이후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즐거움은 그 중요성이 작지 않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불행으로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억제하면서 학습에 매진하는 학생들인데, 그 이후의 미래 역시 계속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 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장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아이들의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재의 행복이 미래의 그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아마도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 학생, 교사 할 것 없이 지속적인 불행은 모두 피하려고 하고 확장된 행복은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지만, 현실을 생각할 때 모두에게 확장된 행복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학생들의 행복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이고 영향력 있는 정책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유학기제는 이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학령기 이후의 행복한 삶에 대한 보장은 학교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경제구조, 복지정책 등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함께 가야한다. 더 많은 좋은 일자리, 학업이나 취업에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을 마련해주는 사회제도, 다양한 진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평등함을 인정하는(equal but different) 인식의 전환 등이 뒷받침되어야 연계된 행복이 가능하다. 학교 교육의 개선만으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연계된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청소년기에 다양한 체험활동,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하더라도, 우수한 품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일터를 갖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유예된 불행을 경험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자유학기제는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교육전문가들은 이 점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거나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한계 속에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연계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여유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다양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확장해보는 ‘진로탐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탐색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여유와 자유를 일정한 정도 보장해주면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란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청소년기의 진로란 일과 학습과의 연계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왜 공부할 것이며, 어떤 공부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 즉 목적과 방향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와 준비를 통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앞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좌우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현재 위치와 미래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설계해 보는 것이 바로 진로탐색의 과정이며, 이는 자유학기제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학기를 통하여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로탐색의 과정이 비단 자유학기제라는 특별한 학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진학이나 취업과 같이 주어진 트랙에서 진입한 후에 갈 길을 살펴보는 것보다 어떤 트랙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트랙에서 벗어나서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가 왜 중학교 단계에서만 가능한지, 오히려 더 학업이나 삶에 지쳐있는 고등학교 단계는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다. 중학교가 적정 시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사이에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발달과업상의 큰 변곡점이 있고, 이미 대학진학이나 취업이라는 진로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현실적인 위험부담이 크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학교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진로에 대한 의식과 기본적인 역량의 함양은 청소년기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후의 행복을 어느 정도 담보해 줄 수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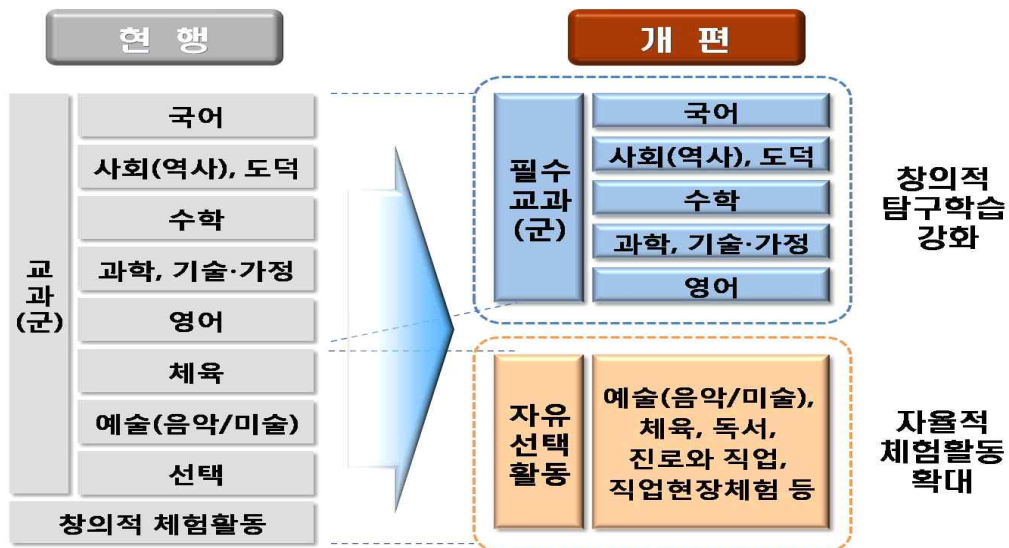
자유학기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자유학기제와 SCEP(School Based Career Education)****가. 교육과정 구성**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자유학기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6개월이 되지 않는다. 중학교는 3개 학년 2개 학기제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육과정개편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모양 만들기과 전면적인 시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다.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일회적인 성격의 정책이 아니라 교과목 구성, 시수 조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의 변화, 새로운 활동에 따르는 인력배치의 문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학교 교육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정책의 구성이나 시행에 있어서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간과한다면 모양만 그럴듯한 정책으로 그칠 공산이 크므로, 자유학기제의 내용을 채울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한다.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같이 필수 교과목의 시수를 대폭 감축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단위학교의 선택에 맡겨두는 ‘자유로운 학년’제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갖추는 것은 경직된 국가표준교육과정시스템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도 초기에는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새로운 교육과정의 변화와 혁신을 고려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초기에 자유학기제 시범적용과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전면적인 교육과정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진로탐색중심의 자유학기제는 현실적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진로탐색이라는 목적이나 방향에서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에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비롯된다.

진로탐색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의 구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자유학기제의 핵심인 ‘여유’를 위해서 교실 안에서 강의 위주의 주지과목에 대한 시간이나 부담을 감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중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기본교과군(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군, 예체능군, 교양과목군,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수에서 일차적으로 주지교과목 시수를 감축하고, 교실 안밖의 체험학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교육과정은 크게 기본교과군과 사회과학교과군을 묶은 필수교과군과 다양한 체험활동, 다양한 부문에 대한 선택교과로 구성된 자유선택활동군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필수교과와 자유선택활동의 두 범주로 구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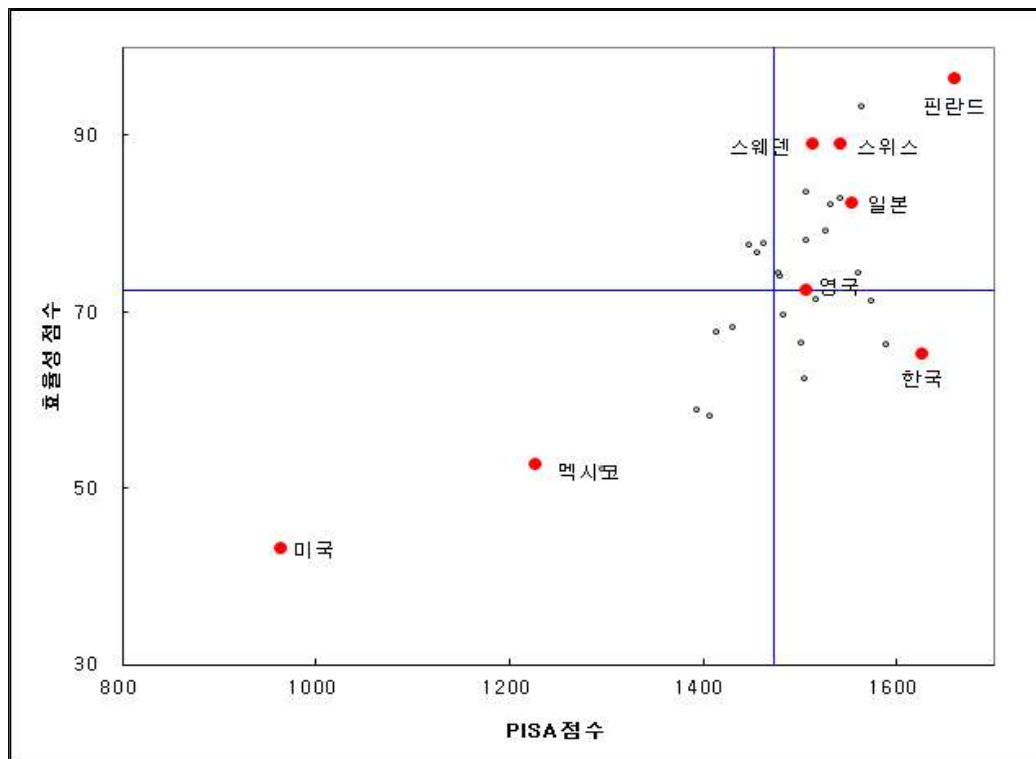


[그림 1]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개편

필수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및 과학 등 현행 기본교과목 사회 및 과학 교과군으로 구성하되,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교과목의 최소이수 운영으로 시수 감축하여야 한다. 주요교과목 시수 감축을 통한 학업부담 경감은 2009교육과정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기본교과(국어, 영어, 수학)의 수를 한 학기 약 70시간 감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감축된 시간은 자유선택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감축된 필수교과목 시간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PISA의 자료 분석결과(그림 2), 한국 학생들의 수학, 언어, 과학에서의 학습효율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수업시간 단축과 동시에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주요국의 학습효율성 비교(2006 PISA 언어, 수학, 과학능력)

자료: 진미석(2008)

자유학기제는 학습방법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주입식 강의식에서 벗어나 토론중심, 프로젝트형, PBL 수업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습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수준별 적용교과를 과학, 사회 등 모든 교과로 확대하고 교과교실제 및 블록타임제 시간표 운영을 확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교재개발, 교수학습법 개선 등에 대한 질 높은 연수를 제공하여야 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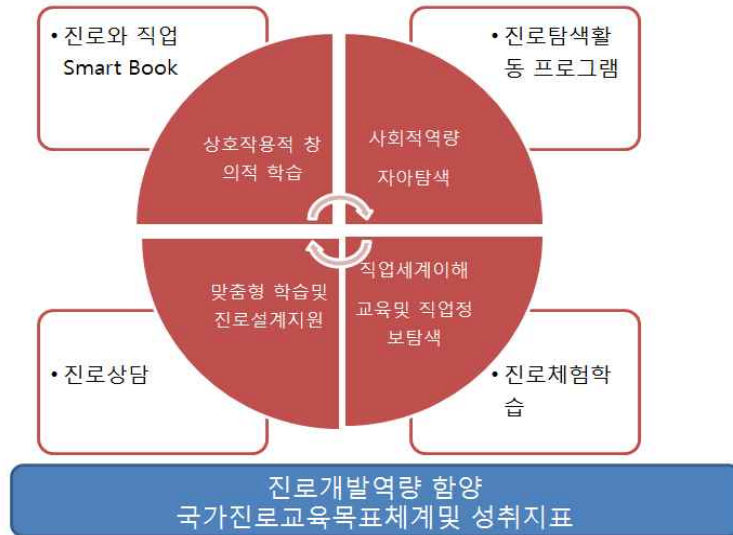
나. 자유학기제와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① SCEP의 구성

자유학기제의 백미는 자유선택활동을 확대·운영하는 데 있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생각할 때 자유선택활동을 제대로 채워서 학생들이 좋은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자유선택활동은 진로교육, 문화예술체육활동, 독서와 창의성활동 과목,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생의 구성,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어떤 모양의 자유선택활동이거나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토대와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SCEP은 진로교육목표체계와 지표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의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그림 3]은 SCEP의 구성과 특징을 제시한 것이다.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그림 3] SCEP의 구성

SCEP은 학생들의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창의적 진로개발 프로그램, 텍스트와 다양한 매체자료로 구성된 스마트 워크북, 학생들의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진로상담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SCEP은 내용구성상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기초역량을 촉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 다양한 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하여 현장기반학습(Work-based Learning)이라는 효과적 학습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와 아울러 개별적인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SCEP은 진로교육목표 체계와 수준이라는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의 토대에서 마련되었다는 점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라는 운영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무리 없이 수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② 진로교육목표와 성취지표

일차적으로 SCEP의 토대는 국가수준의 진로교육목표와 성취지표이다. 진로교육목표체계는 2011~2012년에 걸쳐 기초적인 연구와 현장 및 이론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발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공표된 초중고에 걸쳐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를 이끌어가는 지침이며 가이드라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진로교육목표체계는 그간 진로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그 내용에 대한 체계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온다는 현실적인 문제제기와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학교 급별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성되었다.

진로교육의 목표체계에서 주목할 점은 학교 진로교육의 개념규정이며 목표이다. 학교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에서는 “진로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바른 품성과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것을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평생에 걸친 자기주도적 진로 개척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교육환경 등을 반영하여 참여와 체험 그리고 교사의 조력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전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라는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곧 진로교육은 진로개발역량이란 역량을 기르는 것이고 4가지 하위역량요소를 동일하게 견지하면서 초중고 학교 급별로 역량개발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초등학교에서 함양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준비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표 2>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소질과 적성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타인과 적절하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일과 직업의 중요성과 가치, 직업세계의 구성과 체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직업의식을 배양한다.
- **진로탐색**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회 및 직업정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역량을 기른다.
- **진로디자인과 설계**
자기 이해와 다양한 진로탐색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역량을 기른다.

이와 아울러 진로교육목표체계에서는 진로교육의 특성으로 통합성, 생애성과 자기주도성, 참여성·체험중심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표 3).

<표 3> 진로교육의 특성

- **통합성**: 교육과정과 달리 직업과 진로 교과목, 그리고 타 교과목과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과정.
- **생애성과 자기주도성**: 진로개발은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진로개발에서의 개인의 자발성, 자기주도성의 발현.
- **참여성·체험중심성**: 객관화된 지식을 수동적으로 흡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제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과서 중심으로 교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활동중심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함.
- **창의성**: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노동시장의 추세에 따라, 진로교육에서 새로운 진로나 직업을 창출하고 디자인해 보는 창의적 진로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므로 창의적 진로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역량을 함양함.

이처럼 학교진로교육목표에서 규정된 진로교육은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정보나 안내를 제공한다거나 개인의 소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한다거나 하는 단편적이고 기능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진로교육의 개념에 대하여 분명하게 바로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교육목표에서는 학교급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일정한 정도 나선형의 교육과정의 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영역-중영역-세부목표-성취지표’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교급별로 목표와 성취지표는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표 4> 학교 급별 성취지표 수

대영역	중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I.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1.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7	9	5	5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6	4	3	5
II.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1. 일과 직업의 이해	3	6	4	4
	2.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6	7	5	6
III. 진로탐색	1. 교육기회의 탐색	4	4	7	6
	2. 직업 정보의 탐색	3	4	5	5
IV. 진로디자인과 준비	1.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2	4	3	3
	2. 진로계획과 준비	4	4	9	12
합계		35	42	41	46

진로교육목표체계는 대영역, 중영역, 세부목표, 성취지표로 체계화되며, 성취지표별로 코드화되어 있다. 즉 MI 1.1.1 이라함은 중학교의 M, 대영역인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의 I, 중영역인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의 1, 첫 번째 세부목표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함양한다.”의 1, 첫 번째 성취지표인 “스스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1을 각각 의미한다. 세부지표별 코드는 진로교육관련 프로그램이나 자료의 분류체계로서 기능한다.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체계는 아래 <표 5>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5>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 체계도

전체 목표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중학교 목표	초등학교에서 함양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준비한다.	
대영역	중영역	중학교(M) 세부목표 및 성취지표
I.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1.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M I 1.1 자아존중감을 갖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함양한다. M I 1.1.1 스스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M I 1.1.2 자신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설명할 수 있다. M I 1.1.3 자기 관리의 여러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M I 1.2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다양하게 탐색한다. M I 1.2.1 여러 가지 방법(직업심리검사, 중요한 타자에 의한 평가)으로 자신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다. M I 1.2.2 여러 가지 방법(직업심리검사, 중요한 타자에 의한 평가)으로 자신의 직업흥미를 파악할 수 있다. M I 1.2.3 자신의 적성과 흥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M I 1.2.4 직업심리검사의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M I 1.3 자신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시킨다. M I 1.3.1 자신의 꿈과 연결된 진로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M I 1.3.2 자신의 꿈과 관련하여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다.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M I 2.1 대상과 상황에 맞는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한다. M I 2.1.1 상황별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 M I 2.1.2 서로 다른 생각, 감정, 문화 등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M I 2.2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M I 2.2.1 경청과 설득 등 의사소통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M I 2.2.2 공감을 적절히 드러내며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II.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1. 일과 직업의 이해	M II 1.1 다양한 직업 유형과 진로 경로를 이해한다. M II 1.1.1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일의 유형과 직업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M II 1.1.2 직업이 갖는 개인적·사회적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M II 1.2 사회변동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이해한다. M II 1.2.1 사회 변화가 직업세계에 주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M II 1.2.2 새로운 직업과 사라진 직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M II 1.2.3 직업세계의 변화가 자신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M II 1.2.4 20년 후 나타날 새로운 직업이나 일의 유형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표 계속

전체 목표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중학교 목표	초등학교에서 함양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준비한다.	
대영역	중영역	중학교(M) 세부목표 및 성취지표
II.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2.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MII 2.1 직업 생활에서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MII 2.1.1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MII 2.1.2 직업 생활에서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MII 2.1.3 근로자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MII 2.2 직업생활에 대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MII 2.2.1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MII 2.2.2 일을 통한 경제적인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MII 2.3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개방적인 인식을 발전시킨다. MII 2.3.1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MII 2.3.2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 탐색을 통해 직업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III. 진로 탐색	1. 교육 기회의 탐색	MIII 1.1 자신의 진로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한다. MIII 1.1.1 자신의 미래진로를 위하여 학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MIII 1.1.2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할 수 있다.
		MIII 1.2 고등학교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다. MIII 1.2.1 여러 고등학교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MIII 1.2.2 원하는 진로에 관련된 고등학교를 여러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MIII 2.1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한다. MIII 2.1.1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통해 원하는 직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MIII 2.1.2 직업정보 탐색을 위하여 진로교사 ⁸⁾ 나 진로상담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 직업 정보의 탐색	MIII 2.2 여러 직업에 대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직업 이해에 활용한다. MIII 2.2.1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MIII 2.2.2 원하는 진로의 역할 모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표 계속 □

전체 목표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중학교 목표	초등학교에서 함양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준비한다.	
대영역	중영역	중학교(M) 세부목표 및 성취지표
IV. 진로 디자인 과 준비	1. 진로 의사결정 능력 개발	MIV 1.1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한다. MIV 1.1.1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MIV 1.1.2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의사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MIV 1.2 진로 의사결정에서 진로장벽요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MIV 1.2.1 진로선택에 장애가 되는 진로장벽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MIV 1.2.2 자신이 원하는 진로선택에 장애가 되는 진로장벽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2. 진로 계획과 준비	MIV 2.1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자신의 진로를 설계한다. MIV 2.1.1 자신의 미래진로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MIV 2.1.2 자신의 미래진로 시나리오에 대하여 장단기 계획(고교·대학 진학, 직업 등)을 세울 수 있다. MIV 2.2 고등학교 진학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 MIV 2.2.1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적합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MIV 2.2.2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할 수 있다.

③ 창의적 진로개발 활동 프로그램

창의적 진로개발 활동 프로그램은 진로교육목표와 성취지표에 따라 만들어진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이다. 학교급별로 활동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영역별로 다양한 학습활동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강의와 토론, 연극, 모의 창업 체험(앙터프레너십), 광고 등의 교실 내에서 다양한 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생들을 위한 창의적 진로개발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의 예시를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구성안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9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가능하지만,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8) 진로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약칭임.

<표 6> 창의적 진로개발 활동 프로그램 구성(예시)

대영역	하위영역	내용	학습방법	시수
I.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자아이해	자아존중감 함양 소질과 적성의 탐색	강의 프로젝트 연극 프로그램	15-20
	사회적 역량개발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역량개발	토론 PBS 연극 활용 프로그램	7-10
II. 일과 직업세계 이해	일과 직업세계이해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 직업세계의 변화이해	인터넷 활용 강의 토론 프로젝트수업	13-15
	직업의식제고	건강한 직업의식함양	토론 PBS 미디어활용 역할놀이	10-12
III. 진로탐색	교육기회의 탐색	학습의 중요성 이해 학습기회 탐색	토론, 강의 인터넷	11-14
	직업정보탐색	직업정보의 탐색 직업현장 탐방	인터넷활용 토론 현장체험학습	24-30
IV.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디자인	미래 진로설계	프로젝트 수업 개별 및 집단 상담	5-6
	진로준비	중학교이후의 진로선택	프로젝트 수업 개별 및 집단 상담	11-16

기본적인 프로그램가운데 특정한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화된 형태로도 개발되어 있다. 창의적 진로개발을 위한 창업과 진로 프로그램은 심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있으며 30차시 이상 운영이 가능하다.

〈표 7〉 창업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구성안

Wi-Fi 창업과 진로(중학교)		
모듈	구성요소	시수
1. 창업가정신이란?	1) 창업의 이해 2) 창업가 정신	2차시
2. 국가를 이루는 구조는 무엇일까?	1) 가상 국가 건국 2) 모의시장	4차시
3. 우리만의 특별한 사업 아이템 찾기	1) 창업 아이템 선정 방법 강의 2) 자신의 아이템 선정 활동	4차시
4. 회사를 설립해 보자.	1)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설립의 절차 2) 회사의 가치관 설립	4차시
5.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1)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2) 목표와 방향 전략을 수립	4차시
6. 조직을 구성해 보자.	1) 기업의 조직도 강의 2) 스카우트	4차시
7.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자.	1) 마케팅의 이해 2) 마케팅 개발 및 발표	4차시
8. 우리 회사를 소개해 보자.	1) 내가 꿈꾸는 회사 그리기 2) 내가 꿈꾸는 회사 발표하기.	4차시
총소요시간		10차시

자존감 향상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 연극을 통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은 15시간 이상으로 개발되어 있다.

〈표 8〉 연극을 통한 꿈찾기 프로그램구성안

연극을 통한 꿈찾기(중학교)		
모듈	구성요소	시수
1. 자연에게 말 걸기	소통과 교류 상상의 숲 나무가 되어 보자 상상의 숲 만들기 이야기와 장면 만들기	5차시
2. 나의 일대기	친밀감 형성 자기 이해, 타인 이해 6가지 그림이야기 이야기 만들기 장면(즉흥극) 만들기	5차시
3. 어느 별에서 왔니?	소통하기 별자리 몸으로 표현하기 나의 신화 만들기 별자리 꾸미기 연극 만들기	5차시
총소요시간		15차시

창의적 진로개발활동 프로그램, 연극과 진로교육, 창업과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은 2012년 말에 개발이 완료되었고 교사용 매뉴얼도 개발·배포되었다. 일부 학교에서 이들 프로그램의 일부를 시범 적용하였다. 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연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④ 진로교육 스마트워크북

진로교육목표와 성취지표에 따라 일차적으로 개발된 자료가 스마트북(Smartbook)이다. 스마트북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네 가지 유형으로 개발되었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수업시간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교사의 강의에 그치지 않고 직접 수행해 보고 결과를 공유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국내 최초의 스마트 북으로 내용이나 형식의 측면에서 수업혁신의 시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일선현장에서 스마트북 활용에 필요한 기기보급의 문제가 있어 활용상의 제한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림 4]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중학교급 샘플

⑤ 현장체험학습활동

중학교 단계에서 직업과 일의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일의 중요성,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변화 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나의 공부와 삶과의 연계성의 확인, 대인관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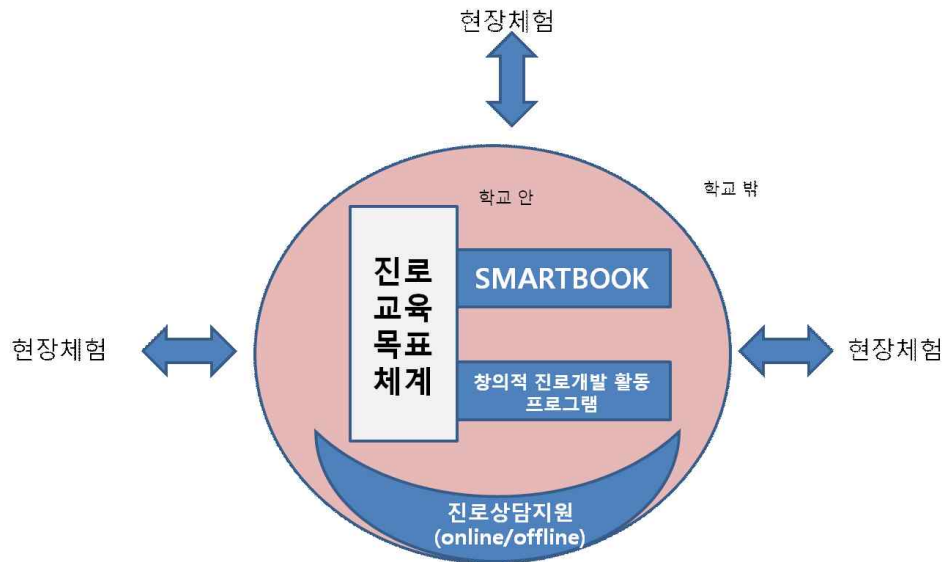
의사소통역량과 같은 기초역량의 중요성의 인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일의 세계 탐색이다. 일과 직업세계의 탐색은 교과서를 통하여,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지만, 직업현장에서 다양한 역할들, 다양한 직무들과 기술들이 실제로 오고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때로는 실습해 봄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Work-based Learning)은 직업세계의 이해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태도, 기초학습능력을 높이는 학습 방법으로서도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어오고 있다. SCEP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진로탐색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현장체험학습이 일회적인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장체험 이전- 현장체험- 현장체험 이후’ 학습의 형태로, 그리고 학교 안과 학교 밖의 학습의 연계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

⑥ 개인맞춤형 진로지도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진로교과 수업이나 활동이 개인적인 진로탐색의 의미로 구체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별·집단별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진로교과 수업에서 집단별 상담을 통해서나 진로진학교사를 통한 개별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커리어넷(www.career.go.kr)이라는 종합적 진로상담 사이트를 통하여 사이버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⑦ SCEP의 운영

SCEP은 단위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즉 진로교육 목표체계에 따라서 학교 내의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스마트 워크북과 창의적 진로개발활동지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여건이 허용되는 경우 다양한 현장체험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개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림 5] SCEP의 운영

4

자유학기제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자유학기제 특히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원 서비스가 조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실 내에서의 교과서 중심 학습이 아니라 몸을 실제 움직이고 그려보고 나타내보고 해 보는 체험중심 학습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을 세세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뿐만 아니라 지원인력도 확보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인적·물적 지원시설의 미비함을 우려하여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가. 시설에 대한 지원

우선 체험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인적·물적 지원체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60만 명에 가까운 전국의 중학생 전원이 한 학기 동안 일시에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산술적으로 체험활동 장소의 분산이용과 통합적 정보망이 운영된다면 단위학교가 부담하는 몫은 그리 크지는 않다. 한 개 학년 60만 명이 15주(1학기) 정도로 분산된다면 한 주에 약 4만 명의 직장체험활동이 실시되고, 한 학교단 체험 장소별로 학생이 4명씩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약 4곳의 체험장을 개발한다면 60만 명의 체험이 가능하다. 현재에도 교육청의 직업체험센터, 잡월드 등 직업관련 기관과 아울러 과학, 예술과 문화 영역 등 여러 체험 장소들이 있다(표 9).

〈표 9〉 직업체험 기관 현황

체험주제	기관		주요 체험 활동	운영 특징
직업	공공	한국 잡월드	• 직업체험, 진로검사, 집단 활동 프로그램 등	• 직업체험 외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탐색 활동이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지원 • 주요 대상은 초등학생~중학생
	민간	키자니아	• 직업체험시설에서 해당 직업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체험 활동	• 직접적인 직업체험 중심의 활동 제공 • 주요 대상은 초등학생
과학	국립중앙 과학관		• 과학실험과 관찰활동, 현장 체험학습위주의 자연탐구 활동	• 전시회, 과학 및 자연탐구 체험 활동, 캠프, 대회 등 개최 • 주요 대상은 초중고 및 어른 등 전 연령대
	국립서울 과학관		• 과학 체험, 도예 체험 활동	• 주요 대상은 어린이
	녹색성장 체험관		•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 관련 체험 활동	•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전시, 체험관 • 주요 대상은 전 연령대
	삼성어린이 박물관		• 과학체험활동, 미술활동, 마술체험활동	• 전시 및 체험, 체험식 박물관 • 주요 대상은 유아~초등학생
역사 및 문화	어린이 박물관		• 유물 관찰 및 체험, 전통문화 체험, 과학적 놀이 체험	• 체험 활동 외 전시, 교육 프로그램, 전통 문화 교육, 영상자료 등 제공 • 주요 대상은 어린이
	한국역사문화 학교		• 과학체험활동, 자연생태 탐구 활동, 전통 문화체험, 역사 탐방 활동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체험활동 구성 • 역사, 문화, 자연, 과학 등 다양한 주제 • 주요 대상은 초등학생

직업체험센터 일본의 직업체험주간 ‘와꾸와꾸 워크’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이 3~5일간 직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약 90% 이상 학교가 참여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직업 체험장에서 기본예절 및 손님 응대법 등을 통해 기업 정신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장의 수는 산술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선 적극적인 새로운 현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현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의 현장체험기관도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부처별 관할 기관이 다르다는 문제와 더불어 수요자 관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인프라의 문제는 교육재능기부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현장기관 인증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더 많은 현장체험 기관들을 유인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존의 관련기관들을 연계하고 협력하여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두 가지 측면의 지원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연계를 지원하는 지역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진로교육 선진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밖의 진로지도 서비스 기관들과의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모습은 좋은 시사를 줄 수 있다. 영국은 민간 진로지도 서비스인 Career Services 기관을, 프랑스는 교육청 산하의 진로정보센터를, 독일은 고용안정센터의 BIZ(직업정보센터)를, 덴마크는 공공 청소년 센터(Youth Center)를 통하여 학교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있는 등, 국가마다 다른 형태의 외부 진로지도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의 경직된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수를 통하여 교육전문가들의 인식을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학교 밖 기관간의 컨소시엄 형태의 진로지도 모형 개발 및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연계 지원정책을 통하여 촉진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학교 밖에서 진로지도 서비스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온전히 진로지도 서비스를

위한 기관은 아니지만 진로지도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청 교육상담센터 등 공공 관련기관과 지역의 고용안정센터들이 있다. 학교 밖의 진로지도 서비스를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들 기관들과 연계성과 협력가능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진로지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네트워킹형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가 제한된 물적·인적 자원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네트워킹형 모형은 기존의 관련 서비스기관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트워킹형 모형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로 일과 직업세계가 매우 다른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더욱 유용할 수 있다. 획일적인 연계 모형은 지역별 편차가 심한 지역에서는 적용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로 교육과 고용구조의 특성, 학교 밖의 가용자원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역별 적합한 연계 모형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모지원 사업 등과 같이 ‘학교-학교 밖’ 진로지도 연계시스템의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하여 현장성이 있는 진로지도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전문인력의 지원

진로탐색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더불어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상담, 현장체험학습 안내 및 지도 등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 중학교에 학교당 1인씩 배치되기 시작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1인의 진로교사만으로는 자유탐색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기는 어렵다. 특히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진로상담에 이르기까지 진로교사의 업무 부담이 큰 현 상황에서, 진로교사가 혼자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모두 총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부를 확대개편하거나 새로운 자유학기제 조직을 신설하고 진로진학상담부와 협업을 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 진로컨설턴트와 같이 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연수 배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학부모 진로컨설턴트는 우선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하여 자발적인 관심이 많다는 점,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직업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유휴 고급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5 결: 교육만능주의와 교육무력주의 사이에서

새 정부가 제시하는 자유학기제는 ‘자유’라는 단어가 내포하듯 시원함과 신선함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자유학기 실시 전후로 종전의 입시교육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위 ‘절벽효과’에 대한 우려나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남는 시간에 입시준비를 위하여 사교육기관으로 몰려가서 오히려 더한 속박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그 배후에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영역내의 제도변화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한 집단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이러한 걱정은 기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시행해 본 교육정책의 사례를 통한 학습효과와 결과임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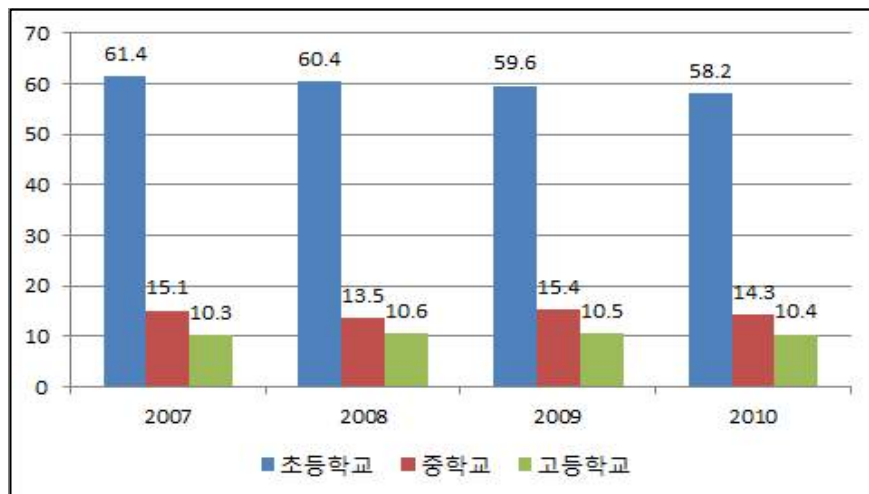
교육정책변화를 통하여 모든 교육문제-사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육만능주의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교육정책변화가 사회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나친 교육무력주의도 정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을 통하여 당장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을 통하여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의식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변화가 장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다.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운영하여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미래도 꿈꿔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자유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학습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준비해갈 수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가니까 가는 대학진학,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4년제 대학 졸업 후 전문대학이나 직업훈련원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 즉 여전히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진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직업이나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사회에서의 대학진학의 의미, 학습의 의미, 일의 의미, 고용 없는 성장의 의미 등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진로경로와는 다르게 자신만의 새로운 진로를 창출하고자 하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젊은 사람들의 일이나 학습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진학의 형태나 직업생활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와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교육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우려는 사교육 증가 현상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노후준비의 걸림돌로 제기될 만큼 과도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학기를 통해 시간적 여유와 자유가 생긴다면, 아이들을 더욱 더 사교육으로 몰고 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한국교총 성명서 등). 즉 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자유학기를 학력보충의 기회로 삼고, 우수한 학생은 선행학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이는 주 5일 수업이 전면 확대되면서 토요일이 사교육을 위한 타깃(target)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현행 입시제도와 고용구조가 여전히 대학서열과 좋은 일자리의 부족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도 한 줄 세우기식의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부모나 학생의 의지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단기적

으로는 당연히 우려할 만한 걱정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된다면 입시 위주의 공부 경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전혀 다른 양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은 본격적인 입시위주의 공부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이 시기에 학부모와 학생의 입시중심 공부 방향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경로에서 보면 중학교 1학년은 학생들이 입시 위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단위: %)



* 통계청 각 연도

[그림 7] 입시와 무관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 추이*

그러므로 오히려 이 시기에 진로 정체감을 집중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방향의 진로 경로 설정 및 다원적 학습 및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중학교 초기에 입시위주가 아닌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진로설계의 기선 제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시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사교육의 증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효과 측면에서는 사교육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진로경로의 범위가 좁혀짐으로써 불필요한 학습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 등 학부모 대상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만 하고 진로경로 설정에 따른 교과 폭의 선택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진로 이외에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경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는 중요한 시도이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학교현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의 실천은 점진적으로 제도와 기반을 갖추어가면서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학생, 학교, 교사에게 학생, 학교, 교사에게 자유학기제를 다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주어야 하고, 자발성과 학생이나 학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성공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위학교나 교육청은 자신들의 여건, 즉 여러 가지 입지나 학생 및 학부모 특성을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조사한 후 자신들에게 맞는 형태의 자유학기제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진로교육목표와 성취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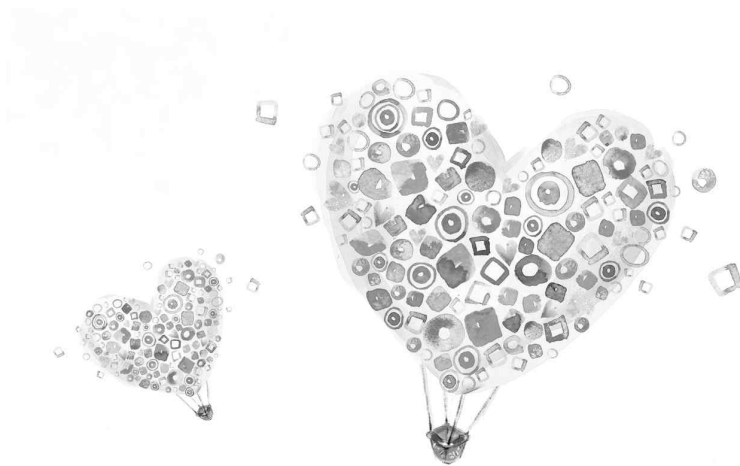
김승보 외(2012). 2012진로정보센터운영사업-총괄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외(2012). 창의적 진로개발활동.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 례 발 표

집중이수제를 활용한 진로활동 프로그램 운영사례

이 선 희 교사 (경기 부인중학교)



집중이수제를 활용한 진로활동 프로그램 운영사례

이 선 희 교사

경기 부인중학교

I 목 적

- ‘진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식하도록 한다.
- 스스로 창의적 진로를 개척하는 기업가정신과 자신의 가치관과 진로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체험한다.
- 직접적인 직업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직업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 직업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을 깨는 시간이 된다.
-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활동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진로를 당장 결정하기 전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Ⅱ 방 침

-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의 운영을 부인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하자센터가 함께 기획하여 창의워크숍, 현장 전문인 특강, 일일직업체험, 관계 워크숍, 모의 창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체험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스스로의 진로지도그리기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매주 금요일 5~7교시 블록타임으로 ‘진로와 직업’ 교과를 개설함으로써 교외 체험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업과 직업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인 특강, 일일직업체험, 직업조사 등의 직업체험활동의 기회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한다.

Ⅲ 운 영 설 계

- 기 간: 2011년 3월 2일 ~ 2011년 12월 23일
(매주 금요일 5, 6, 7교시 운영)
- 대 상: 중학교 1학년 ‘진로와 직업’ 선택 학생 7개반
(이동수업- 2, 3개 반이 섞임)
- 담당교사: 비전공자로 7명의 본교 교사
(평균시수보다 적은 교과에서 담당
-수학2명, 도덕 2명, 영어1명, 역사2명)
- 전체 수업을 부인중-한국직업능력개발원-하자센터의 담당자들이 기획하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 수업 담당교사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여(실제 수업처럼 진행) 수업내용과 방법을 익힌다.

- 중점 추진 내용: 진로에 대한 고민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창의적 태도와 실행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나와 직업세계를 탐색한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모둠으로 진행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힘을 기른다.

IV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부인중학교 '진로와 직업' 2011학년도 연간 계획 >

기획·진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울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1학기]

월	날 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3	4	• 오리엔테이션	• 앞으로 진행된 수업에 대한 안내
	11	• 인트로 • 사전진단	• 자기소개 • 진로성숙도 검사 • 직업적성검사
	18	• 오프닝: 진로?! 네 비 게 이 셴 이 아닌 나침반	• 진로에 대한 관점 및 수업 개괄 • 변화하는 직업세계 • 진로란,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알기 • 진로와 삶의 가치 추구가 하나인 것을 알기 • 진로에서 <가치>의 중요성 알기: "어떤" 직업인이 될 것인가
	25	• 삶을 주체적으로 디자인하다 : 일상과 창의적 태도 ----- 창의적 태도 워크숍 1	• 게임으로 만나는 팀워크와 창의의 의미 (마쉬멜로 챌린지) • 일상(자신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과 태도 연습 •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돈과 스펙을 넘어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알기 •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탐색하고, 즐겁게 실행 연습해보기

월	날 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4	1	창의적 태도 워크숍 2	• 문제발견-상상-공동의 해결 이라는 과정을 워크숍을 통해 경험하기	
	8	창의적 태도 워크숍 3	• 실제 자신이 있는 공간인 학교와 가정을 돌아 보고,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워크숍 진행	
	15	창의적 태도 워크숍 4	• 팀 별 워크숍과 프리젠테이션 진행 • 사회적 기업가들의 인터뷰 영상과, 3의 법칙 영상을 통해 창조적 진로에 대한 생각 정리	
	22	• 관계를 만들다 : 자신감	• 칭찬 받은 경험 나누기 • 칭찬 인터뷰: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서로의 장점 인터뷰하고 써주기 • 칭찬 나누기: 모둠에서 자기 짝의 장점 발표 • 전체가 장점을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해 주기	
5	6	• 관계를 만들다 : 소통	• 경청- 세 가지 듣기 : 등대고 듣기(시범 실습)/ 나란히 앉아 듣기(시범 실습)/ 마주앉아 듣기(전체 실습)/ 경청 하고 소감 나누기/ 공감하며 듣기 • 좋은 말 : 모두가 [상처 주는 말/ 듣기 좋은 말]의 말 카드를 함께 읽고 '듣기 좋은 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채워 넣는다. • 전체 앞에서 각 모둠의 최악/ 최고의 말을 발표합니다.(모둠활동) • 소감나누기	팀별 워크숍
	13	• 나를 더 알다 : 적성과 기질, 환경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통한 자신의 특성 이해> • 나의 직업흥미유형 파악 • Holland 이론을 통한 직업흥미유형 이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안내
	20	• 나를 더 알다 (검사)	<진로심리검사 해석을 통한 자신의 특성 이해> • 직업적성검사를 통한 나의 적성 파악 • 진로성숙도검사를 통한 나의 진로준비정도 파악 • 검사 결과를 종합한 나의 재발견	팀별 워크숍 및 상담
	27	• 나를 더 알다	<직업카드 활동> • 나의 직업가치 인식	
6	3	• 직업을 만나다 변화하는 직업세계 / 나의 관심: 관심분야 직업을 찾고, 직업 영역 및 선택의 기준을 찾아봐 와서 공유 + 자신의	• 변화하는 미래 직업세계 보기 • 나의 관심과 연결 • 관심 직종의 실제 일상생활 및 직업 선택의 기준 탐색 ----- • 일일 직업 체험에 가서 배울 것 정리	- 돈 근무 시간 인간 관계 등에 대한 개념 잡기 - 장 단점

월	날 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주요 기준 찾아보기	(진로와 직업 교과서 활용)
	10	현장전문가 특강 (학부모포함)	<현장전문가특강> • 체험이 아닌 형태로, 직업인과의 대화
	17	일 일 직 업 체험 ※2-3학년 단위/하자센터	<일일직업체험> • 현장 전문가의 직업 현장 이야기 듣기 : 직업 선택의 이유,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등 • 체험
	24	직업 리서치	<직업리서치> • 목표: 직업의 다양화를 알기,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 팀별 1부씩 잡지 준비 :여행, 패션, 교육 등 사진이나 이미지가 많은 잡지를 팀별로 하나씩/ 게임 후, 룰에 따라 팀별로 원하는 대로 골라서 가져감 • 1절 폼포드 2장을 활용. 1장에는 잡지에 등장하는 직업군을 다 오려 서 붙임/ 1장에는, 그 중 한 직업인(또는 직종)을 골라, 구체적으로 하루 일상을 소설처럼 완성 하기(시간대별로 구성, 자기를 대입해보기)
7	8	• 1학기 정리	• 학부모 초빙 : 금융이란 무엇인가 • 1학기 진로와 직업 수업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한번 되짚어보면서 각 수업에서 중요시 했던 사항들을 각인시켜줌

[2학기]

월	날 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2	• 모의창업 워크숍 1 (직업창조모듈 및 창업 안내)	• 진행 방식 소개 및 모듈 구성 • 창업의 의미 • 새로운 직업 생성 과정 및 사례 • 청년 창업가 소개 영상 시청
9	9	워크숍 2 (소규모 창업 실전)	• 아이디어 발굴 • 사업타당성 검토 • 제품이나 서비스 모의 제작
	16	워크숍 3 (소규모 창업 실전)	• 제품이나 서비스 모의 제작 • 제품에 대한 홍보

팀별 워크숍
※ 모의창업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원 모델과 하자센터의 모델을 각 1번씩 진행 나머지 5번은 교사들이 직접 진행.
(교사연수는 여름방학 중 NFTE에서 진행)

월	날 짜	학습 주제	학습 활동	
	23	워크숍 4 (창업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조별 제품이나 서비스 제안• 창업전문가의 심사 및 비평• 우수모듬 선정	
	30	워크숍 5 (결과 보고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별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정리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의창업을 통해 선정된 팀 또는, 각 팀이 창업 실습을 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고 진행• 돈의 경우, 다른 단위를 활용하거나, 아이디어 창출하여 팀이나 개인을 포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	※ 프리젠테이션 또는 판매 진행 부스 만들기
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직업인의 삶이 이야기된 영화로 직업탐색하기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현재/미래 직업• 이색직업, 외국의 직업 등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퀴즈 & 직업퍼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퀴즈와 퍼즐 게임을 통해 직업의 종류와 특성 알아보기• 직업탐색방법과 직업정보 알아보기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지도를 만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학년도 초부터 진행된 진로 수업의 내용을 돌아보고(사진 자료 등 활용), 진로지도를 만드는 포인트 잡기• 진로 지도를 그리기 전, 중 1까지의 생활과 1년 간 배운 진로수업 돌아보기• 진로 지도 기획서 작성• 진로 지도 제작• 교사는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며 멘토링	※ 진로 지도를 그리는 방법 및 요소에서도 워크숍을 진행 스스로 찾아보도록 진행 ※ 기획안 작성 후, 다음 시간까지 고민과 자료 찾아오도록 과제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지도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의 진로 지도를 프리젠테이션• 반 전체의 진로 지도를 짚어보기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성숙도 검사• 직업적성검사	

1 창의성 워크숍

◆ 활동 내용

- 진로란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알게 하고 진로와 삶의 가치 추구임을 알게 한다.
-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자체만 보고 선택한 경우보다는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아 직업 탐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한다.
- 사회의 변화에 맞춰 직업세계도 끊임없이 변하고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게 하고 ‘창의적 가치’가 진로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 시킨다.
- “나는 ()한 ()가 될 것이다.”
- ‘창의성’의 다양한 요소 중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로서 일상을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 팀 활동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공공의 선을 위한 가치를 뽑아 워크숍으로 경험한다.

◆ 활동 결과 및 평가

- 현재 우리 사회 직업 세계의 변화와 창의적인 삶의 길을 만드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너무 빨리 장래희망·직업을 정하는 것 보다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평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도 깰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 단순히 개인이 잘 살기 위한 진로 선택이 아니라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사는 직업인이 되는 것이 더 가치롭다는 것을 알아가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 관계형성과 상호소통이 활발하게 변화했고,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 처음에는 이 수업이 중 1 수준에 맞을지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막상 수업을 진행해보니 아이들이 수업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 빼고는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이 수업을 완벽히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활동자체가 의미 있었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히고 창의성이 갖는 새로운 의미를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교사 혼자 30명이 넘는 학생을 지도하기 힘든 프로그램이었다. 멘토 선생님이 몇 분 더 계셔서 수업이 진행된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유사한 프로그램을 부천관내의 다른 중학교에서 진행된 경우가 있었는데 모듈별 멘토가 1명씩 있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전달하고 하는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관계를 만들다

◆ 활동 내용

-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서로 인터뷰하고 장점 써주기를 하고 다른 모듈원에게 자기 짝의 장점을 발표하여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격려해 주어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한다.

- 두 명씩 짝을 지어 등대고 듣기와 옆으로 앉아 듣기는 대표실습으로, 마주앉아 듣기는 전원이 둘씩 짝지어 실습을 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관찰자로서 두 사람을 자세히 참관하고 그들의 기분과 느낌을 이해하도록 한다.
- 친구들의 상황별로 ‘상처주는 말’과 ‘감동주는 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각자 활동지를 가지고 ‘듣기 좋은 말’을 해 주는 연습을 한다.

◆ 활동 결과 및 평가

- 친구와 인터뷰란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친구의 장점 20가지를 찾는 것을 생각보다 어려워하였다. 장점이란 것을 지나치게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실제 칭찬에 많이 인색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 처음에는 ‘뭘~ 이런 걸 하나~~’싶은 표정이더니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색지에 칭찬이 점점 늘어나고 주변 친구들이 그 글귀에 스티커로 동의를 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뿌듯해 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스스로 칭찬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이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학생 평가가 있었다.
- 경청하는 부분이 더 활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처럼 놀이를 하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게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다.

③ 나를 더 알기

◆ 활동 내용

- 직업카드를 이용하여 내가 관심 있는 직업과 관심 없는 직업의 공통점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통해 본인의 직업가치를 확인한다.
- Holland 이론을 통한 직업흥미유형 6가지를 이해하고 본인의 직업흥미유형을 알아본다.
- 첫 시간에 진행된 진로심리검사 결과지 해석을 통해 나의 직업적성과 진로준비정도를 파악해 본다.

◆ 활동 결과 및 평가

- 직업카드만 가지고도 직업의 다양성을 느끼고 실제 잘 알지 못하는 직업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 사람들마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친구들과의 공유를 통해 스스로 깨닫는다.
- 사실, 교사들이 직업을 많이 알지 못하여 설명하기 힘든 직업들도 직업카드와 결과지에 소개된 직업에 많이 언급되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4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 탐색하기

◆ 운영 방법

- 7개 반을 (3/2/2)로 나누어 3가지 활동을 로테이션으로 진행한다.
- 직업체험활동은 개설 가능한 활동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한다.
- 직업전문인과의 만남은 1일 두 분의 강사를 모셔서 1시간씩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 직업리서치 활동은 모둠별로 결과물을 만들도록 한다.

날짜 이동반	6월 10일		6월 17일		6월 24일	
	활동 주제	관련 내용	활동 주제	관련 내용	활동 주제	관련 내용
3반	직업 체험 (교외)	영상, 메이크업, 패션디자인, 마술, 뮤지컬, 분장	리서치 (교내)	1인당 잡지 1권 준비	직업인과 만남 (교내)	만화가 소방관
4반						
5반						
6반	직업인과 만남 (교내)	의사 도시 농부	직업 체험 (교외)	보컬, 영상, 메이크업, 게임, 마술	리서치 (교내)	1인당 잡지 1권 준비
7반						
8반	리서치 (교내)	1인당 잡지 1권 준비	직업인과 만남 (교내)	방송기자, 헤어디자이너	직업 체험 (교외)	그래피티 메이크업 게임, 분장, 마술
9반						

◆ 활동 내용

- 서울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일직업체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본다.

- 서로 다른 분야의 직업인을 두 분씩 모셔서 그 분들의 학창시절 이야기와 현재의 직업을 갖게 된 과정, 그 직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단순히 보고 넘기던 잡지에서 다양한 직업을 찾아내는 활동을 통해 직업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직업 세계 탐색의 시간을 갖는다.

◆ 활동 결과 및 평가

- 글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고 동시에 자신안의 재능과 흥미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직업 선택의 기준을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그 직업에 대해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면을 깨닫게 되고 직업에 대해 이론이 아닌 실재를 현장에서 생활하는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되는 경험자체가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 직업체험이라고 하지만 체험기관이 마련할 수 있는 분야밖에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저 흥미위주의 체험이 될 수 있다.
- 직업인과의 만남은 아이들이 현장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직업에 관심이 생기는 거 같아서 좋았으나 섭외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인을 모시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 담당교사 인맥의 접근으로 다가가게 된다. 따라서 전문직업인들의 DB가 따로 있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되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5] 모의창업 수업

◆ 활동 내용

- 창업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로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창업도 고려가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든다.
- 7~8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에는 멘토 선생님 1명이 활동을 지원한다.
- 사업 아이템 개발 과정 소개, 사업 아이템 선정 방법을 배워 모둠원과 협의를 통해 아이템을 선정하고 선정된 팀별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팀별로 조직(CEO, 재무팀, 마케팅팀, 시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팀별 역할을 익힌다.
- 시장조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 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조사 설문지를 설계해 보고 시장조사를 활용해 고객의 욕구와 사업 분야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 마케팅의 의미, 마케팅과 고객 욕구의 관계, 브랜드와 마케팅의 4가지 요소를 이해 할 수 있다.
- 사업의 마케팅 계획과 재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한다.
- 모의 창업 체험을 위해 생산된 제품을 판매, 소비하는 체험을 실시하고 체험 후 팀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스스로의 평가를 실시한다.
- 팀별 사업아이템 발표를 통해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활동 결과 및 평가

- 창업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의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제품이 생산되고 그 속에서 각 팀들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조금이나마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전 과정이 모둠별로 협의하고 결정하여 계획하는 과정이다 보니 협력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매시간 모둠원 전원이 발표하는 기회를 갖다보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
- 각 모둠별로 멘토교사가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교사 1인이 모둠 4개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계속 각 도움을 돌아다니며 살펴보아야 할 듯하다. 교사의 한 번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활동을 하지 못 하는 것 같았다.
- 판매 물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입해 주는 것이 쉽지 않다. 모둠별 요구사항도 생기고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물품을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각 모둠별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근로계약서는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실제 고등학생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아르바이트 계약 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수업활동을 통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⑥ 시대적 변화를 통해 본 직업 탐색

◆ 활동 내용

- 과거, 현재, 미래의 직업을 살펴보고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직업에도 변화가 생김을 안다.
- 모둠별로 미래사회의 특징을 이야기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직업들이 필요한 것 같은지 미래직업 찾기를 통해 미래 직업의 흐름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색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직업의 세계는 극히 일부분임을 알고 새로운 직업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음을 상기 시킨다.

◆ 활동 결과 및 평가

- 시대별 직업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많이 흥미로운 활동이었고 직업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음을 알고 사회변화가 직업세계 변화에
- 이색직업을 통해 보통 우리는 사회적 관점으로 직업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 선택하는데, 개인적 취향, 관심, 관점으로 직업을 선택했을 때 행복함과 경제적 수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학력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7 진로지도 만들기

◆ 활동 내용

- 현재부터 미래까지 자신의 진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 갤러리식으로 자신의 진로지도 교실에 전시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친구들은 포트스잇을 이용하여 댓글달기 활동을 한다.
- “나는 _____한 _____(이)가 될 것 이다.”을 작성하여 자신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진로수업을 마무리한다.

◆ 활동 결과 및 평가

- 자신의 계획이 담긴 진로지도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되었고 포트스잇을 이용한 댓글 달기는 서로를 지지하면서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
- 처음에 생각했던 직업에 대해 더욱 확고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꽤 있었고, 오히려 꿈이 없었던 학생들 중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된 학생들도 있었다.

V 전 체 평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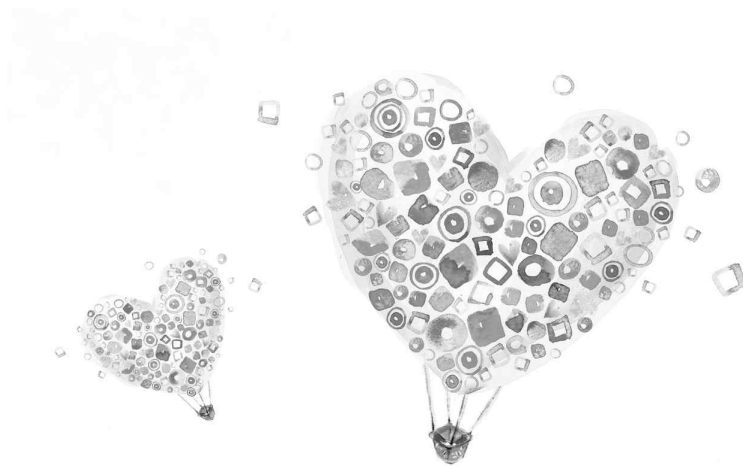
- 처음에는 교사·학생 모두 ‘우리가 왜 진로수업을 해야 하지?’가 고민이었으나 수업이 거듭될수록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단순히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라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대부분의 교사가 특별히 진로분야에 대해 배움이 깊지 않고 다른 분야의 직업인들 보다 직업탐색의 기회도 적었던 것이 막상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한계로 다가왔다.
-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3시간 블럭수업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 확실히 3교시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모의창업과 같은 수업은 3시간 블럭수업이 아니면 실행에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 활동위주의 수업이 더 필요한 것 같았다. 아이들이 좋았던 수업으로 기억하는 대부분이 책상에 앉아있었던 수업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적인 수업이었다.
- 교사가 수업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수업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결국 매 시간 수업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자신감을 갖고 수업할 수 없었다. 진로라는 것을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교사가 1년 동안 진로수업을 맡아서 기획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진로수업의 진정한 실효성은 거두기 힘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한 점은 사실 많은 부분 짐을 덜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매번 진행이 전달식이다 보니 교사가 직접 계획한 것에 비해 진행상에 빈틈이 많이 보였다. 학년 초에 힘들긴 하지만 진로 수업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진로과목 담당 교사들이 진로수업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교과 수업시수와 담당학년이 빨리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진로수업이 될 수 있다.

- 교사의 수업내용의 이해도가 완벽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배움의 완성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되었다. 외부와 협력 시 100% 동일수업의 관념을 버리고 자기화하는 노력과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할 것 같다.
- 진로수업의 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것에서 오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아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고 진로에 대해 특별히 고민이 없거나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학생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계속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무척 부담스러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 초반 수업을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잡고 또,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잡아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어서 그나마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었을 것이라는 교사 평가가 있었다.
- 진로 수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회성에 그쳐 아이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을 텐데 단계별로 연계성을 띄고 이루어지다보니 자신의 꿈에 대해 한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아니다보니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모의 창업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는 물론 미래의 계획 설계에도 약간의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 정 토 론

- 김 진 숙 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민 희 정 학부모 (경기 연성중학교)
윤 여 복 장학관 (서울시교육청)
김 종 우 교사 (서울 성수고,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장)



토론 1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주제발표 1,2에 대한 토론 : 자유학기제의 정체성 규명과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제언

김진숙 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명칭의 정리 필요가 필요함.

예)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에 대한 정의

자유학기제 : “자유학기를 1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의 교육시간제도”

자유학기 : “중학교 3년의 6학기 중 교육과정(전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수업방법, 평가 방법 등에 있어 나머지 학기들과 다르게 편성하여 학생 중심의 체험활동, 진로탐색이 강조된 학기”

중학교 3년 = 자유학기(특별학기) + 일반학기

- 발표문 1,2 모두에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기’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자유학기를 1개 학기에 시행한다고 할 때, 자유학기를 적용하지 않는 나머지 학기들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현된다고 할 것임.

2. 자유학기제의 취지:

‘확장된 행복’ 추구에 대하여- 목적과 방향이 있는 학습이 학생의 행복감을 보장해주는가? → 과정에서의 즐거움이 있는 학습이 되어야 할 것임.

- 발표문 2에서 진미석 박사는 학령기에도 행복하고, 졸업후에도 행복한 이상적인 형태의 ‘확장된 행복’이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행복의 유형을 제시하며,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함.

→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만족도, 생활에서의 행복 추구가 강조되어야 함. 자유학기제가 의도하는 ‘행복’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서의 만족도 제고이며, 이를 위해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임.

3. 자유학기제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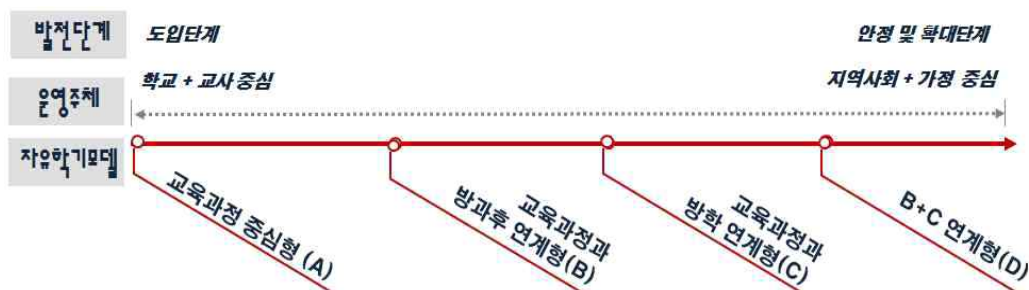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 자유학기제의 유형인가 자유학기제의 정체성인가?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3년의 6학기 중 교육과정(전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수업방법, 평가 방법 등에 있어 나머지 학기들과 다르게 편성하여 학생 중심의 체험활동, 진로탐색이 강조된 학기”(안)임. 진로탐색이 자유학기에서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이지만, 자유학기의 전부는 아님.

4.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델의 타당성

- 제시된 운영 모델 4가지는 현재도 동시다발적으로, 학교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1) 순차적인 발전단계로 확산되는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2) 운영 주체를 학교와 교사 중심에서 탈학교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로 구분하고 발전한다고 본 점에서 적절치 않음.
- 이지연 박사 발표문 III, IV장의 기본방향,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모델에서는 탈교과, 범교과적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운영주체에 있어서 자유학기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 지역사회와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표 1> 주제발표 1의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 교육과정 중심형(A), 교육과정과 방과후 연계형(B), 교육과정과 방학 연계형(C), B+C 연계형(D)의 구분: A보다 B, C, D가 최근 2~3년간 교육정책을 통해 추천되어 왔고, 실천되어 왔음.
- 1) A, B, C, D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모델(model)이 아니라 학교의 인적, 물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유형(type)이며, 2) ‘순차적’ 적용의 발전단계(2013년~2016년) 준비-실험-안정-확장의 계획과도 일치하지 않음.

5. 자유학기제의 목표 및 운영의 초점

5-1. 자유학기 한 개 학기의 자유로 인해 나머지 일반 학기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자유학기제의 목표는 자유학기 1학기의 ‘자유’가 아닌 중학교 전체 6개 학기 교육의 질 제고에 두어야 할 것임.

5-2.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와의 연계에 앞서 교과 변화에 초점을 둔 자유학기제가 되어야 할 것임.

→ 학교 교육활동의 본령인 교과의 변화와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학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부 교과 수업의 무의미함, 지루함. 그러나 교과 시수를 줄여서 해결하려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교과 수업이 학생에 따른 맞춤형 수업, 창의적이고 체험중심인 활동으로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비교과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밖 교육활동(방과후 학교, 토요 프로그램 등)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그 활용가능성(예: 교육과정과의 연계,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은 강조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학교 교육활동의 본령(교육과정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인 교과의 변화와 개선이 없이 자유학기제가 의도하는 진로탐색, 더 나아가 학생의 행복찾기는 요원할 것임.

<표 2> 주제발표 1의 자유학기제 운영 기본방향 중 일부

교과 중심 교육내용

꿈과 끼를 탐색하는
교육내용 강조

→ 교과 교육내용이 ‘교과 중심’인 것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이를 수업하는 과정에서 학업에 재미를 느끼게 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교사주도의 강의식 수업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음. 교과 내용 중에는 일견 꿈과 끼를 탐색하는 교육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멀어보이는 내용도 있으나 이를 전달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 학교 교육과정 중 교과의 비율: 초등학교 1~2학년군은 약 84%, 3~4학년군은 약 90%, 5~6학년군은 약 91%, 중학교1~3학년군은 약 91%, 고등학교는 약 88%임.

→ 국제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교과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 교육과정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상황이 특이한 것임. 교과를 줄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기 보다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개선, 수업 방식의 개선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표 3>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구 분		1~3학년
교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6. 자유학기제 운영시 교과 개선 방안

→ 교과 수업시수의 감축은 교과의 위축이 아니라 교과 활동을 자유롭고 심도있게 경험하게 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교과 수업시수의 감축보다 성취기준의 수를 줄이는 등 질적인 면에서 학습부담의 경감이 필요함. 교과 내용을 줄이기 위해 성취기준의 수를 줄이고 질적으로 학습량이 줄어들도록 ‘핵심 성취기준’으로 압축하여 제시함.

※ 참고: 자유학기제에 따른 수업시간과 학습량의 편성

〈표 4〉 자유학기 수업감축안 1- 교과 시간수의 감축 사례

* 주당 수업시수 기준

구분	중1-1	1-2	2-1	2-2	3-1	3-2
교과	30	26	31	31	31	31
창체	3	7	2	2	2	2
계	33	33	33	33	33	33

- * 1학년 2학기가 자유학기인 경우, 창체 시간을 중2~3에서 1시간씩 줄여서 자유학기에 7시간으로 증배하도록 한 사례임

〈표 5〉 자유학기 수업감축안 2- 교과의 성취기준의 수 감축 사례

구분	중1-1	1-2	2-1	2-2	3-1	3-2
A교과 성취기준	25	20	25	25	25	25

※ 참고: 자유학기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요소

〈표 6〉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요소별 구현 방안

구분	교육과정 편성·운영 요소		방안
학교 교육 과정	자유학기제의 선택 주체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
	시기(적용 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적용 대상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교과 재구성	학습량	유지, 감축, 심화·보충
		교과통합	교과간 통합 및 융합교육
		진로교육연계	진로교육과의 연계 및 통합(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학교 수준)
	다른 학기와의 연계		중학교 3개년 모든 학기에 대한 교육과정 계획
교실 수업	수업의 설계		교수학습과정계획안 작성, 학습집단구성의 다양화, 바깥활동을 포함한 체험활동의 확대
	수업 시간 운영		블록시간제, 교과간 통합 시간(교과 교사의 팀티칭제)
	수업방법 개선		강의식 수업×, 학생의 참여와 발표 증가, 탐구활동 중심, 체험활동 중심
평가	평가유무		국가, 지역, 학교 수준 평가×, 교실 및 교사 수준 평가○
	평가도구		지필평가 감축, 포트폴리오 및 관찰 등 수행평가○
	평정결과		성취평가제(A,B,C,D,E)

7.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의 자유:

7-1. 결정 주체: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야 할 것임.

자유학기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이를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세부적인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최근 20년간 교육정책의 기조인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확대 기조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음.

※ 참고:

<표 7> 자유학기제의 적용과 관련한 선택 주체별 역할(안)

선택 주체	자유학기제 관련 역할
국가	자유학기제의 시행에 대한 명시
시·도 교육청	자유학기제의 주요 요소의 적시, 시행 학기 등 주요 요소들 중 교육청의 판단에 따른 결정, 학교에서 정할 사항에 대한 적시
학교	자유학기제에 수반되는 모든 요소들의 최종 결정

7-2. 적용 학기:

적용 학기에 대해서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참고:

1) 정규 1개 학기 지정

자유학기제는 중학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이 참고로 한 전환학기제(TY)를 참고할 때 중등학교 전반에 걸쳐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일차적인 적용 대상으로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나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능함

2) 2개 이상 학기 적용

적용시기를 학교급별 1개 학기로 할 것인지, 2개 이상 여러개의 학기들에도 허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함

3) 특수학기(extra session) 신설

자유학기제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운영중인 학기 단위가 아니라 특별한 학기 구성(방학 중 학기, 중3의 중간고사 이후 4분기 학기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 자유학기제의 도입 초기, 시범학교 등에서 또는 일부 자유학기제의 특성을 자유롭게 학사 운영에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음

〈표 8〉 자유학기제의 예외적 적용-특수학기

구분	특징	장점	단점
특수학기 (extra session)	특정 요구가 있는 학기에 정규 교육과정 수업을 하고, 별도로 특별학기 구성 (예: 중학교 3학년 2학기 후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측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간 연계 지도 - 인성교육 측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으로 연계된 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가 정해진 학생들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정교화해야 함

토론 2

토론: ‘21세기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전인적 교육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향과 운영 방안 논의 필요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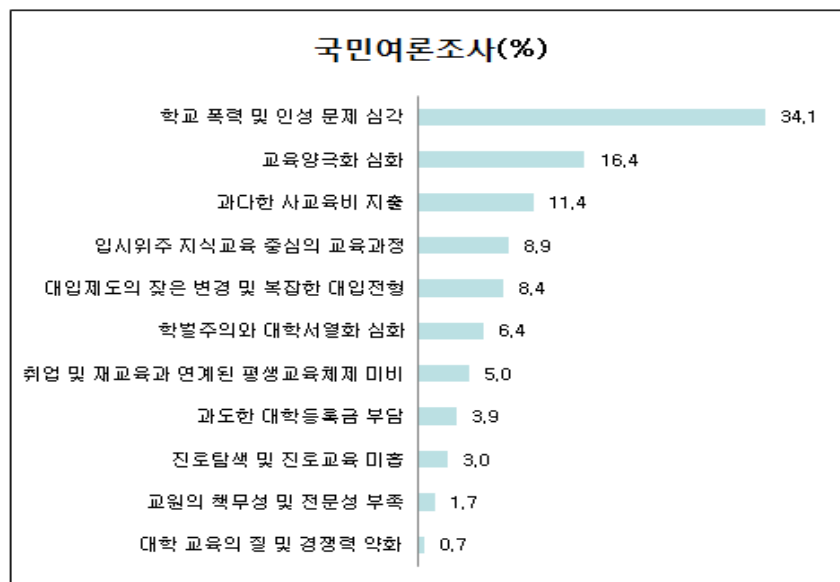
이지연 박사님과 진미석 박사님 두 분 모두 진로교육 전문가답게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향과 운영 방안을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잘 제시해 주셨다. 현 단계에서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향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그러한 측면에서 두 분의 발표는 자유학기제의 구체화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

본인 또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고, 2012년에 수행한 ‘차기 정부의 10대 핵심 교육정책과제 제안’에서도 주요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을 위해 꼭 자유학기제를 실행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은 남는다. 이미 중학교에서 총 306시간 이상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진로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특정 정규 학기 전체를 할애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진로교육이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일부분이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유학기 전체가 진로교육만을 위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자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등의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향 및 운영 방안이 ‘21세기 핵심 역량 교육’¹⁾이라는 보다 전인적 교육의 관점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근거를 최근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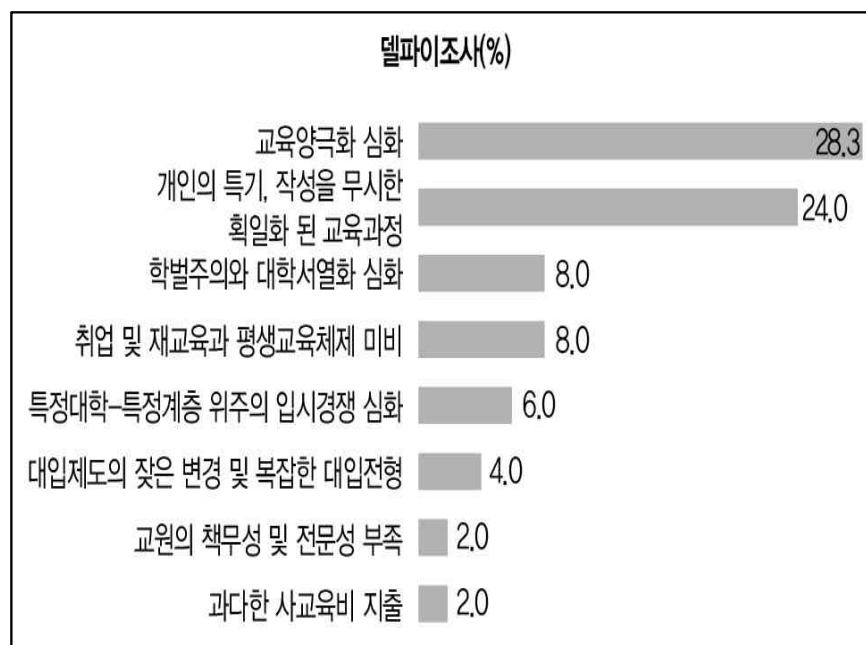
1.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최상덕 외(2012)의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교육문제(현안)에 대해 묻는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및 인성문제 심각(34.1%)’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이 ‘교육양극화 심화(16.4%)’였다(그림 1).



[그림 1] 우리사회의 교육문제(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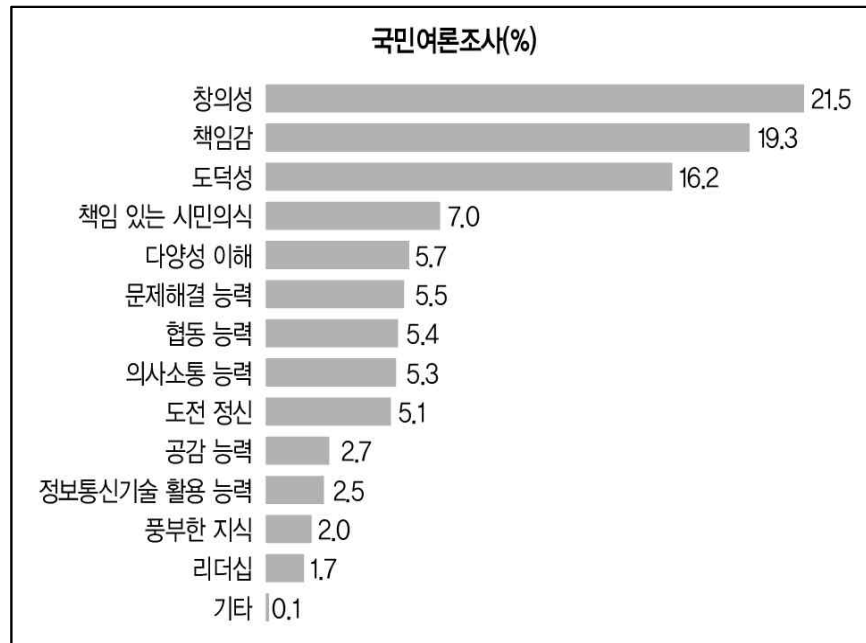
1) ‘21세기 핵심 역량’의 정의와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최상덕 외(2011)의 ‘21세기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또한 델파이조사에서는 ‘교육양극화 심화(28.3%)’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이 ‘개인의 특기, 적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교육과정(24.0%)’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이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교육양극화 심화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또한 ‘학교폭력 및 인성문제 심각’과 ‘개인의 특기, 적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매우 심각한 교육 현안과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우리사회의 교육문제(현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또한 국민여론조사에서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관련해서 ‘창의성(21.5%)’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이어 ‘책임감(19.3%)’, ‘도덕성(16.2%)’, ‘책임 있는 시민의식(7.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미래인재로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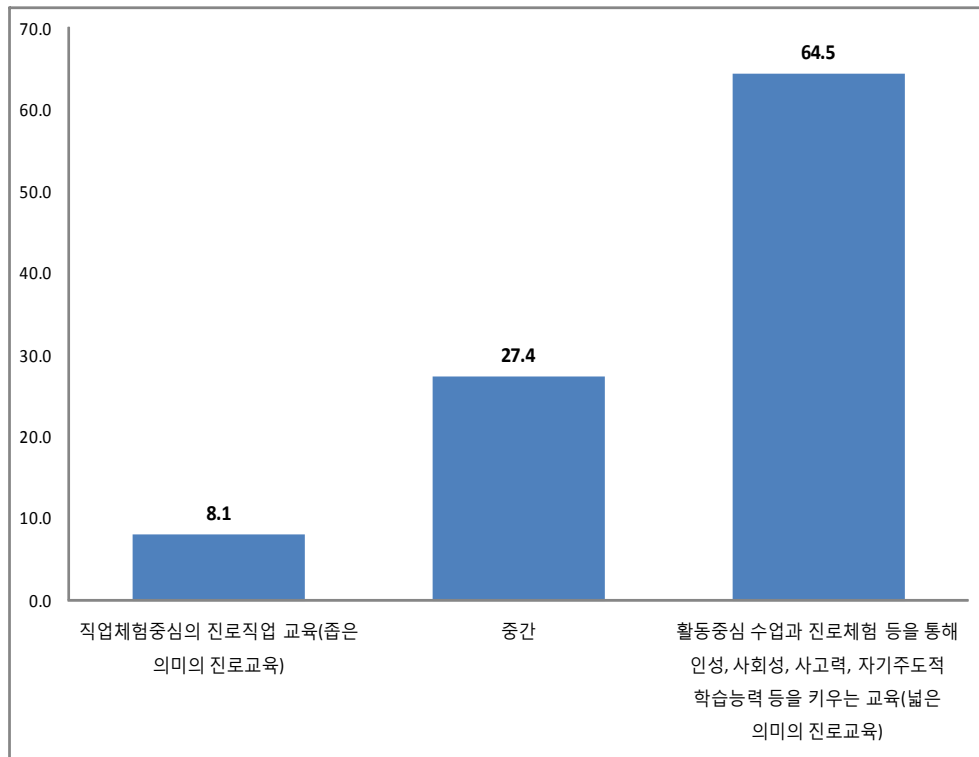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교육문제의 연결고리가 입시 위주의 주입식 지식교육을 위해 어렵고 과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공교육이 부실화되어 정작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키워주지 못하고,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행복하지 않게 되고 불만이 늘면서 폭력이 증가하는 데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앨빈 토플러가 한국 방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15시간씩 공부를 하느라 꼭 필요한 인성, 사회성, 창의성 등의 핵심 역량 형성은 경시하는 교육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자유학기제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종보고서에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국정지표 산하 국정과제인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자유학기제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문제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향에 대해 중학교과정에서 한 학기동안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 학기동안 지필고사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즉, 바람직한 미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은 줄이고 학생이 주도성을 갖고 함께 배우는 활동 중심의 체험교육을 확대해 점차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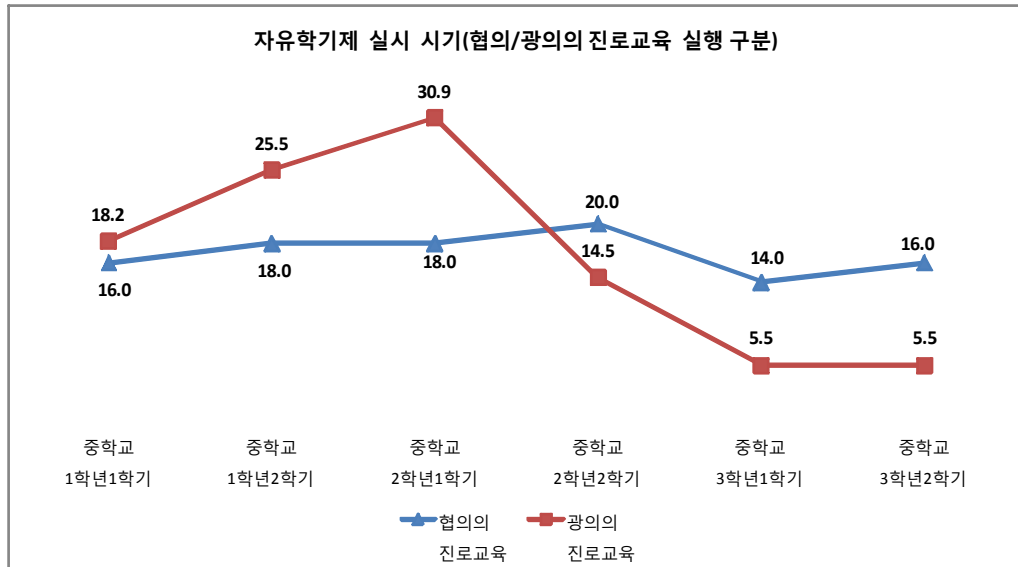
2.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도입 필요성이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그들의 요구는 무엇일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최상덕)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당사자를 6개 그룹(전문가, 진로진학상담교사, 일반교과교사, 교장(장학관 포함), 교육시민단체/학부모단체 대표, 학생)으로 나누어 총 32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이하 FGI)를 실시하고, 중학생들을 31명을 대상으로 FGI 방식을 확대한 집담회(이하 중학생 집담회)를 한 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64.5%가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험 등을 통해 인성, 사회성, 사고력, 자기주적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광의의 진로교육)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응답자의 8.1%만이 직업 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협의의 진로교육)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



[그림 4] 자유학기제 시행의 방향(설문조사 종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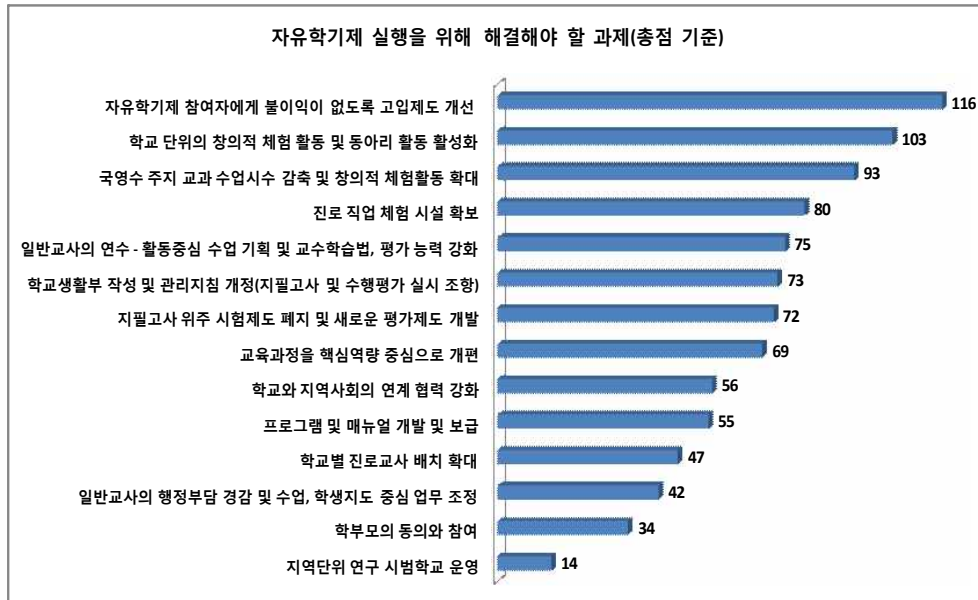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유학기제의 실시 학기에 대해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실행할 경우 '2학년 1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협의의 진로직업교육 중심으로 실행할 경우 '2학년 2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5).



[그림 5] 자유학기제 실시 학기 선호도(설문조사 종합 결과)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 스스로 1학년은 중학교 시험 등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다소 덜 성숙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2학년 2학기 이후는 고입(시험)에 대한 압박감 또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입제도 개선’,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 ‘진로 직업체험 시설 확보’, ‘일반 교사의 연수-활동중심 수업 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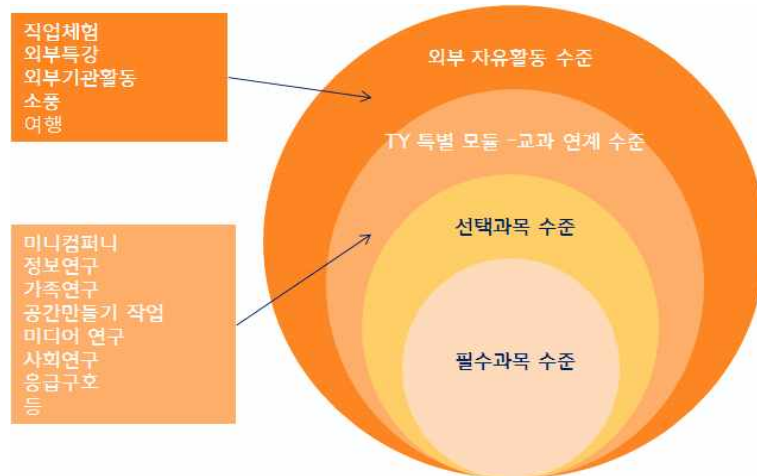


[그림 6]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설문조사 종합 결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집담회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므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청소년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의 제안과정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향과 운영 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전환학년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74년에 당시 아일랜드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리처드 버크(Richard Burke)가 제안하였다. 즉, ‘학생들의 높은 점수 취득과 경쟁적 성공에 대한 점증하는 압박감으로 인해 교육이 갈수록 지식습득을 위해 단순 반복적이고 고된 일로 전락하며 학교 또한 학교 밖의 세계와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 년 동안 전인적 성숙과 지역 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Jeffers, 2007). 즉, 고등학교 과정 진입에 앞서 학생들의 인성, 사회성, 교육, 직업 측면에서의 균형적 발달을 통한 전인적 성숙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이 취지와 목적은 1986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전환학년제 가이드라인에 의해 전환학년제의 목적과 실행방향, 운영방안으로 반영되고 체계화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환학년제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자기주도적이고, 참여적이며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학문적인 공부와 진로교육을 통합한 폭넓은 일반교육’을 제공할 것과 ‘학문적, 기술적, 심미적, 사회적·인성적 발달, 진로교육’ 등이 조화롭게 구성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업시간의 30~50%를 전통적 또는 학문적 교과로 채우도록 하였다. 1993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목적과 방향을 토대로 전환학년제를 공식 학제로 포함하여 고교 과정의 첫 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등학교 졸업자격취득과정(LC, 고교 2~3년 과정 해당)과는 분리되도록 해 시험위주의 지식교육으로 편입되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수업시간의 30~50%를 전통적 또는 학문적 교과로 채우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졌으나, 필수교과, 선택교과, 전환학년제 특별모듈, 특별체험활동의 4가지 수준이 조화되도록 권장한다(그림 7).



[그림 7] 전환학년제의 교육과정 구성

출처: 김현철(2013)

필수과목은 아일랜드어, 수학과 같이 모든 학생들이 1년 동안 배우는 교과이다. 선택과목은 생물학, 컴퓨터, 경영학 등과 같이 LC과정에서 이수할 과목들 중 미리 배워볼 수 있도록 하되 수업 방식은 LC과정과는 다르게 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환학년제 특별모듈 프로그램은 전환학년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학생들이 희망한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수업, 통합 수업(예 사회+정치학), 체험과 연계한 외국어 교육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부자유활동 위주의 특별활동은 정규 시간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벤트 형태로 직업체험, 봉사활동, 수학여행, 드라마/음악 제작 등과 같이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전환학년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 학교(Ash School)의 전환학년제 시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Jeffers, G., 2007). 1시간 당 38분씩 해서 매일 8~9교시 수업이 이루어지며, 2시간 또는 3시간의 블록 수업도 과목에 따라 편성된다. 필수과목은 아일랜드, 수학의 경우 모든 학생이 동일 시간에 주당 4시간씩 배우며, 영어는 레벨 등에 따라 여러 과목 중 선택해 매일 1시간씩 배우도록 한다. 선택과목 중 생물학, 컴퓨터, 경영학, 화학, 철학, 물리학 등은 2시간씩 블록 수업 형태로 주당 4시간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 외에도 미디어연구, 외국어 등 다양한 과목의 수업이 제공된다. 전환학년제 특별모듈 프로그램은 직업 상담, 사회+정치학(통합교과), 사고력, 청년 리더십, 기업 연구, 미술감상, 요리, 공예 등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언뜻보면 다른 정규 학기 시간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수업 방식이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활동중심 수업과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 전환학년제의 성과는 학생, 교사, 학교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학생의 인성, 사회성, 교육적, 직업적 측면의 전인적 성숙을 촉진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결과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증진되면서 교사의 정체성, 전문성, 자아개념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업 방법 혁신을 위해 교사연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사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학교가 수업방법의 혁신,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의 변화, 교사의 자발성과 열정 부여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김현철(2013).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1호.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최상덕 외(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01.
- 최상덕 외(2012).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방향과 전략: 2013-17년 핵심 교육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RR 2012-09.
- 최상덕(2012). **차기 정부의 10대 핵심 교육정책과제 제안**.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
- 최상덕 외(2013).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근간).
- Jeffers, G. (2007). Attitudes to Transition Year: A Report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토론 3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민 희 정 학부모 (경기 연성중학교)

- ◇ 중학교에서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은 학생들이 폭넓은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함으로써 학습 동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됨. 이러한 교육 수요자의 긍정적 변화는 한국 교육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확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하지만 진로 탐색의 기회가 특정 학기(교육과정형)에 단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본 방향이 유사한 ‘혁신 수업’의 경우 모든 수업에 적용 했을 시 1년이 지나니 아이들이 변화되고 효과가 눈에 보이더라는 교사들의 보고를 보더라도 한 학기로는 기대 효과 적음.
 - 전 후 연계성 없는 수업 모형은 단기간에 학습 동기 부여가 되더라도 수업 내용이나 양에 있어 괴리감이 커져 학습 동기에 요요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 현 상황에도 단위학교에서는 학기에 편성된 진도를 다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서를 대체한 프린트 물을 이용함. 전반적인 교육 과정 및 입시 형태의 변화 없이 주요과목 시수를 20%축소하는 것은 사교의 의존도를 높이고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주요과목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학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정신적 성숙도의 개인차가 크고 대부분의 학생이 사춘기를 겪는 중학생의 특성상 특정 학기에 국한된 진로 체험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이유로 진로 체험 교육은 중학교 3년, 전 기간에 걸쳐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통합형 진로 교육 실천 사례-경기 시흥 연성중학교 >

VLE 로드맵을 통한 더 아름다운 내 꿈 찾아주기
[비전Vision+학습능력Learning Ability+감성Emotion]



◇ 통합형 자유학기제 운영 시 우려되는 단점(이지연 박사, 34쪽) -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과 매뉴얼로 인한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은 전담 교사의 배치와 학부모회의 지원으로 줄일 수 있음.

< 학부모 진로 교육 지원 사례 >

< 활동 주제 및 방향 >

담당동아리	활동주제	진로 교육 지원 활동 방향
1학년 '어깨동무'	봉사교육	봉사와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마인드 함양을 도움.
2학년 '북적북적'	독서교육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독서를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바른 직업관과 폭넓은 세계관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
3학년 '북돋움'	진로교육	진로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로드맵 형성을 돕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의 자녀 진로 교육 역량강화를 도움.

<봉사활동 지원 내용>

활동 분야	2010년 활동내용	2011년 활동내용	2012년 활동내용
봉사 교육	· 자원봉사 기본 교육 · 가족봉사단 구성	· 자원봉사 기본 교육 · 자원봉사 박람회 (봉사처연결) · 가족봉사단 구성	· 가족 봉사단 구성
지역 사회 봉사		· 지역 장애아동 초청 실내놀이터 체험 봉사 · 신천도서관 '희망씨' 자원 봉사 · '금사랑봉사단' 과 사랑빵 만들기'- 양로원 전달 · 독거노인 문안, 생필품전달	· '천사의 집'정기 봉사 · 양로원 목욕 봉사 · '사랑 빵 만들기' 봉사-양로원 전달
체험 활동		· 시흥문화원과함께 시흥알리기행사(능내천 ~갯골생태공원)	
교내 봉사	· 녹색실천 '실내정원 플라워 박스 만들기' · 녹색실천 학교주변 정화활동 · 알뜰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 교복 물려주기	· 녹색실천 학교주변 정화활동 · 알뜰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 교복 물려주기	· 녹색실천 학교주변 정화활동 · 교복 물려주기 · 신입생 교복 마련 바자회 (떡 판매 - 19명 교복 지원)
글로벌 봉사		아프리카 신생아 모자 떠주기	

< 독서활동 지원 내용 >

활동 분야	2010년 활동내용	2011년 활동내용	2012년 활동내용
부모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독서·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장면':가출·연애·반항, 청소년시기의 통과의례인가? - '완득이':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기': 이슬람 문화 바로보기 - '마당을 나온 암탉' '열혈 수탉 분투기':비교독서, 같은 주제 다른 느낌 - 시 낭송, 시 엽서 만들기 · '북아트' 교육 · 문화나들이: 영화관람, 강화 역사 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독서·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엄마들의 꿈 이야기 -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엄마가 들려주는 사춘기 이야기 - '리딩으로 디링하라': 자녀와 인문학 동행 - '마당을 나온 암탉' -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 문화나들이: 영화관람 · 북아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독서·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딩으로 리드하라' - '아웃라이어' - 감명 깊은 책 소개하기 · 문화 나들이 : 영화, 연극 관람
지역 사회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기증 (지역도서관100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맹공이 책방'과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으로 아이 마음 읽어주기' - '책이 들려주는 소통 비법' -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책' 참여 · 아나바다 도서기증(200권) 	
체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스쿨 (경기도 교육청) · '작가와의 만남' -김중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시 군자봉 '성황제'체험 · 시흥시 역사문화유적 체험 · '행복한 책읽기'수강 · 북 콘서트-'서울'과 함께 · '작가와의 만남' -스티브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와의 만남' - 옥봉수, 박순임 · 부모님과 함께 가을길 걷기
학교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 교육청 초·중등 '독서 골든벨' 지원 (부분문제출제, 행사 보조 등) · 독후활동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장면': 댓글 토론 - '완득이': 독서 퀴즈 -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기': 편지쓰기 - '마당을~'열혈 수탉~': 공통점과 차이점 벤다이어그램 - 시집: 시 엽서 만들기 - '신운복의 풍속화로 배우는~'그림 속 상상일기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동이리 '모여서 공부' 학습코칭 · 교내 독서 동아리 '작은Book世通'책 읽어주기 봉사 지도 및 동행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성누리'신문 발행 · '책과 함께 떠나는 별빛 독서 캠프'

< 진로탐색 활동 지원 내용 >

활동 분야	2010년 활동내용	2011년 활동내용	2012년 활동내용
학교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인의 직업인과의 만남 · 재량활동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누구인가? (자아탐색) -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 공부하는 진로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다. - 성공하기 위한 자세와 태도 엿보기 - 꿈 가꾸기 - 올바른 목표와 계획세우기 -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생각의 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초콜릿 나눠주기(중간고사 시) · 33인의 직업인과의 만남 ·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제작 (직업탐색 활동지) · 10년 후 명함 만들기 · 중3을 위한 드림 디자인(전문가특강 - 장진주아나운서) · 학습코칭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인의 직업인과의 만남 ·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제작 -직업탐색 활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 교과 시간 편성 및 수행평가 적용 · 10년 후 명함 만들기
학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및 상담 · 미래 자녀의 브랜드 만들기 · 자녀 성격유형 알기 · 심성수련 · 진로문제인가?진학문제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학습: '송가 네공부법' · 자녀성격유형에 따른 대화법 · 아버지 학교 · 학습코칭 기본·심화 과정 · 포트폴리오 지도사 · 중국어 학습 동아리 · 디지털카메라 활용법 · 기타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학습 실천방법 ·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법 · 아버지 학교 · 자신을 변화시키는 메이크업 · 뇌교육 · 전통 다도와 먹거리 체험 · 중국어 학습 동아리 · 기타 수업
재능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율동아리 지원 (학습코칭,펠트공예,쿠키클레이,독서지도,학교행사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율동아리 지원 (야간 자율학습 지도)

◇ 지역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에 밝은 학부모의 지원은 자유학기제 운영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며, 이미 시·도 교육청 단위로 진로 코치가 다수 양성되었으므로 5만 명의 새로운 양성(이지연 박사, 41쪽)보다는 기존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 학부모의 1차적 인력풀 제공이 지역사회나 전문 직업인의 2차적 지원으로 연결 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 대상의 인적 자원 운용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함.

< 학부모의 인적 자원 활용 사례 >

지원자	지원내용
33인의 전문 직업인	· 직업 체험
요트클럽회장	· 학교 · 요트협회간 MOU체결 · 요트 체험학습
촬영감독	· 촬영기술 수업(방송반 지도) · 외발자전거 수업(특기적성수업) · 디지털카메라활용수업(학부모 교육) · 학교행사 시 촬영
스티브 김	· 꿈 PT 대회 및 꿈 장려 장학금 · 작가와의 만남(특강)
건강가정지원센터	· 학교 · 센터 간 MOU체결 · 학급헌법만들기 프로그램 · 학부모 교육 제공
수영연맹	· 학교 · 연맹 간 MOU체결 · 수영수업 (1인 3스포츠/ 체육 블록수업)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 수영수업 시 체육센터 시설 이용
테니스연맹	· 학교 · 연맹 간 MOU체결 · 테니스 라켓, 공 지원(1인 3스포츠/ 체육 블록수업)
호텔경영인	· 음식바자회 시 요리사, 음식재료
이벤트업체	· 축제 시 악기 및 기자재 대여
김중미, 옥봉수, 박순임	· 작가와의 만남 (특강)
지역 체육관 관장	· 스포츠 데이 · 특기적성 장소, 강습 지원 (탁구, 검도, 태권도, 합기도)
시흥 시립 악단	·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 지원 (바이올린, 첼로, 플룻 등)
시흥시 연극 협회	· 연극지도(학교 축제)

- ◇ 자유학기제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 에세이나 활동보고서는 적절하지만 초등학교부터의 연계가 필요함. 일기쓰기 숙제와 노트 필기가 거의 없어지고, 숙제도 대부분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요즘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매우 낮으며, 이는 또 하나의 학습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고, 성적화 된다면 또 다른 사교육이 성장할 수도 있음.

- ◇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여 맹목적 대학 진학을 줄이고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직업탐색이 필요함. 일본 동경의 한 고등학교(2010년 교과부 제공, 학부모 선진국 사례 시찰)에서는 주 1회 전문 직업 교육을 편성하여 백여 가지의 전문 직업인이 학교를 방문함.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라면 1명의 학생이라도 강좌를 개설하고,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 위의 일본 고등학교의 경우 많은 전문 직업인을 지원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교육 당국과 시의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었던 것과 같이 유관기관의 유기적이고 안정적 지원이 필요함.
- ◇ 학교에서는 성적 중·하위권의 학생을, 단위학교에서는 농·어촌과 소도시 학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함. 중·하위권의 학생의 학습동기와 자아 존중감은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보다 더 낮으며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적성 검사마저도 진정성 있게 임하지 못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띄지 못함. 이들의 변화가 학교 문화나 교육 문제 해결에 큰 단초가 될 것임. 한편,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농·어촌, 소도시의 교육, 문화, 산업, 이 밖에 많은 분야에서의 환경이 열악하므로 지역사회 이상의 네트워크가 필요함.
- ◇ 성공적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습방법개선(진미석 박사, 64쪽)은 혁신 학교 수업 모형과 기대효과가 유사함. 혁신 수업의 결과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부여가 가능했고 수업참여도가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음(시흥 장곡중). 또한 학생들의 만족도나 행복지수도 높아졌다고 함. 하지만 현 입시 제도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상위권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필요성을 말했고, 고등학교 교사는 혁신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주입식의 고등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하였음. 이는 자유학기제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전면적인 학습방법과 입시 방법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함.

토론 4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토론

윤 여 복 장학관 (서울시교육청)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수학습 방법과 입시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을 수년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 줄로 세우는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적 여건 때문에 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 정서를 가진 학생들의 대부분이 폭력과 가출과 중도탈락과 자살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었지만, 일시적인 처방일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한 「자유학기제」는 경쟁 중심의 교육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육의 근본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교육 증가, 학력 저하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꿈을 향해 스스로 공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우일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교육의 현안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한다.

1. 진로교육 관점의 접근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진로탐색 중심의 접근은 매우 바람직하다.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인성·창의적 교수학습은 결국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수단이다.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에 대한 진로비전을 수립하도록 돕는 진로탐색 중심의 교육과정이 바로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보면, 연구학교의 지정 과제로 교육과정 편성, 수업개선, 진로 및 인성교육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교육과정 편성 영역은 공통과제로, 수업개선 영역과 진로 및 인성교육 영역은 택1로 되어 있다. 일부 연구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과 교수학습 개선만 연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영역을 나누어 진로교육을 일부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진로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을 간과한 것이다. 주제 발표자들의 주장처럼,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이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의 공통된 목표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

2. 실시 시기

비교적 안정적 자유학기제 운영이 가능한 학년으로 1학년 2학기과 2학년 1학기를 고려하되, 2학년 1학기는 구체적인 자신의 진로탐색이 가능한 시기이나 학습의 연속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옳은 지적이다. 1학년 2학기가 2, 3학년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진로탐색 활동에 높은 흥미와 자기주도적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는 것도 매우 바른 판단이라 생각한다.

다만,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간이기 때문에 1학년 2학기를 실시 시기로 했을 때

1학기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3. 실시 방법

현재의 경직된 국가표준교육과정시스템에서 교육과정을 대폭 개정하여 자유학기제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변화와 혁신을 고려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초기의 학생과 학부모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 SCEP을 도입하여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고,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또 방과후활동, 방학중 활동 등을 연계하여 자유선택활동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들의 시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교사나 몇몇 진로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로탐색 중심 접근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전 교과 수업과 모든 교육에서 진로교육적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유학기제에서 진로교육을 극히 일부로 치부하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

4. 기대 효과

우리는 지금까지의 암기식 공부, 수능형 학습, 점수경쟁 교육이 학생들의 진정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교육의 잘못된 학습철학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이것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입·대입제도 개선,

사회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개편, 교수학습방법 개선, 법령 개정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입시제도를 바꾼 후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든지, 수시로 개정해 온 교육과정을 자유학기제를 위해 지금 당장 개편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한 후 시행하자는 것은 자유학기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주제 발표자들의 말처럼, 자유학기제가 단기적으로는 우려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중심의 진로인식,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 시험 중심의 평가, 학교 내에서의 교육 등 학교교육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젊은 사람들의 일이나 학습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통해 사회와 고용시장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진로교육 관점의 접근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토론 5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 방향과 과제 - 토론문

김 종 우 교사 (서울 성수고,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장)

I. 시작하며

우리교육은 똑똑한 아이를 선발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를 선발하려는 욕망이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 교육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발이 교육의 원인이자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공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만들었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학습능력이 아닌 수학능력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찾아낸 정답수를 수량화하여 나타낸 성적으로 표시되게 했고 그 성적을 보고 학생과 학부모는 능력을 판단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공부 잘 하는 학생위주의 프로그램이었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회사, 좋은 직업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제로섬게임이 될 것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은 10%가 채 되지 않으나 우리는 열 명중 아홉 명이 실패하는 경쟁을 강요당하는 셈입니다.

Ⅱ. 주제발표내용의 문제점과 대안

1. 발표자의 안

가: 배경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기본방향 강조

- 두 발표자는 진로중심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혹자는 독서교육 활성화, 인성 교육 강화, 학교 체육교육 확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독서와 인성, 학교체육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진로중심의 학기제가 되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나: 자유학기제 추진과정 2016년에 전면시행 안에 대해서

출생년도	인 원	대입년도	출생년도	인 원	대입년도
1995(고3)	715,020	2014	2001(초6)	554,895	2020
1996(고2)	691,226	2015	2002(초5)	492,111	2021
1997(고1)	668,344	2016	2003(초4) (2016년)	490,543	2022
1998(중3)	634,790	2017	2004(초3)	472,761	2023
1999(중2)	614,233	2018	2005(초2)	435,031	2024
2000(중1)	634,401 (2013년)	2019	2006(초1)	448,153	2025

금년 고3이 되는 학생들이 714,020명인데 서울시 교육청 중학교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주요내용을 보면 확산기와 발전기 정착기로 시행이 됩니다. 2016년에 전면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때 학생 수는 49만원으로 매우 줄어듭니다. 지금보다도

삼분의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시점이고 만약 진로를 잘못 선택을 했을 때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치루어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4개 모델 안에 대하여

- 교육 과정형 자유학기제에 대해 -

국 영 수 성취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의 성취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학년별 교과별로 이수할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미이수 수업시간은 어느 학기에서는 이수해야 함으로 학업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과시수를 줄여야 합니다. 해당 학년에 맞는 교과서 개발과 자유학기제 이후 학년과의 학습연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된다면 교육과정형 자유학기제가 바람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매주 월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진로탐색활동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은 학교 밖에서 자신의 장래희망과 진로에 관련된 현장 전문가 멘토를 직접 찾아가 현장학습을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 연극배우가 꿈인 학생, 등이 입학과 동시에 자신을 이끌어 줄 학교 밖에서의 멘토 선생님을 구합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체험장과 멘토 선생님들을 구해 1대 1의 멘토와 연결해 주고 진로에 대한 안내와 현장체험을 실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통합협형 진로교육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담당과목 진도를 나가야하고 시험범위가 있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범위가 존재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란 어렵습니다. 교사 또한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가 있고 그 동안 가르쳐 온 것이 있는데 갑자기 진로라는 개념을 첨가해서 지도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진로는 진로교사가 해야지 라는 반목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 영 수 과목을 축소해야 하므로 기존 선생님들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오지 않을까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 교육과정과 방과 후 활동 연계형 자유학기제 모델-

창체 활동을 방과 후 시간에 연장해서 하는 활동이므로 교사의 적극성과 열정 그리고 전문역량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학습자원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사의 부담감을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진로교육개념이 학교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진로교사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교사의 부담감이 늘어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자유학기제가 진로교사만을 위한 것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은 다른 교사도 업무부담 증가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 밖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학교라는 문턱은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전반에서 진로체험을 위해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관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방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모델은 더욱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라. 창의로운 체험 활동: 진로 동아리, 진로지역 자원봉사, 일 체험에 대해

유사한 진로동기를 갖춘 집단 안에서 적극적인 탐색활동을 나누고 공동 작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와 연계한 동아리 활동이 필요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나 관심직업 분야별 도전 직업별 등을 파악해서 진로에 기초를 둔 학급편성도 가능합니다. 같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습흥미나 성취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 우리는 우선적으로 외부기관에 대하여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의 경직된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수를 통하여 교육전문가들의 인식을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학교밖 기관간의 컨소시엄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아래 연구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로 진학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진학에 대한 자료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입시에 대한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로교육을 맡기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임은 자명합니다. 국가 단위에서 진로교육센터를 만들고 각 시도에 지역진로교육센터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곳에서 진로체험기관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마치며

한 학기라도 학생들이 경쟁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자유학기제’ 도입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실시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통해 중학생들로 하여금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학생은 일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꿈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의 극단적인 학생생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고, ‘끼’는 일을 잘 꾸며 내거나, 해결해 내는 생각이나 수단입니다. 이것을 찾고 길러서 자신의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자유학기제 아래서 학생들이 느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어떠한지 될까요?

혹자는 많은 직업과 직업인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진로를 정하게 하는 것이 진로교육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많은 검사를 통해 적성을 찾아내는 것이 진로교육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로교육이 관심을 갖고 행해지기는 하나 정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음도 느낍니다. 직업을 찾는 기술, 지식으로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진로교육은 인생설계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고 무슨 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지를 찾아내는 것, 찾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고민해야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국 중학교에 1인씩 배치되기 시작한 진로교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고 진로상담을 하고 현장체험 학습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진로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단위학교에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본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ivet.re.kr>

제1회 진로교육 포럼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 발행연월일	2013년 3월 일 인쇄 2013년 3월 일 발행
· 발행인	박 영 범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인쇄처	범 신 사 (02)503-8737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